

기본신앙교육자료 《 이성교육 》

「한 편의 시」 “사랑 희망”	6
1. <육 사랑> <육체 사랑> <육적 사랑> <이성 사랑>	7
1) 육체 사랑은 수십억 가지 사랑 중의 하나다	7
2) 육체 사랑은 극적인 사랑의 행위다	7
3) 사랑의 핵과 본질은 육체 사랑이 아니다	7
4) 육의 사랑은 사랑해도 일순간이다	8
5) 육적 사랑은 한계가 있다	9
6) 육적 사랑만으로는 곤고하다	11
7) 이성애 빠진 자는 사망의 영이 된다	12
8) 세상의 큰 사랑을 육적 사랑으로만 사용한다	12
9) 온전한 <육 사랑>의 의미	13
2. <영 사랑> <영적 사랑>	16
1) 삼위와의 신적 사랑이다	16
2) 육과 영을 구해주는 최고의 사랑이다	17
3) 성약 시대 신부급 사랑이다	17
4) 영원한 사랑이다	18
5) 하나님적 사랑을 먼저 배워야 된다	19
6)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랑이다	20
3. 이성의 죄를 범하지 말라	21
1) 하나님은 이성의 법을 가장 큰 법으로 정해 놓으셨다	21

2) 구원과 휴거되기 위해 사랑에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한다	22
3) 이성의 죄는 하늘나라 천국에 가지 못하고, 사망에 있게 한다	24
4) 사탄 마귀의 이성 유혹을 이기고 살아야 된다	25
5) 하늘 신부이기에 100% 완전해야 한다	26
 4. '이성 죄'의 '영적 상황'	28
1) 천국에는 이성적 사랑에 전혀 생각이 없다	28
2) 이성 죄를 지은 자들의 영계 상황	28
3) 세상, 이성 사랑할 때 꿈에 보이는 모습	30
4) 성장하지 않은 자들의 이성 죄의 영계 상황	30
5) 자위 행위를 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볼 때 신앙의 불구자이다	31
 5. 이성 문제, 이성 타락의 원인	32
1) 아담과 하와의 이성 타락	32
2) 사탄은 이성 사랑으로 유혹한다	34
3) 각종 음란한 것들로 이성의 죄를 짓게 된다	35
4) 모르면 이성, 동성에 빠져 산다	36
5) 생명 관리를 잘 못 할 때 이성 사랑에 빠진다	37
6) 할 일을 안 하는 때 이성 문제도 생기게 된다	37
 6. <이성 문제> <이성 죄>의 의미	38
1) 사랑의 죄다	38
2) 이성적으로 하나님 법을 벗어난 것이 죄다	38
3) 하나님을 절대 사랑치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이성적 타락과 같다	39
4)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야 한다	40
5) 이성으로 흥분돼서 기쁘다고 영광 돌리면 불법이므로 심판받는다	40

7. <이성 문제> <이성 죄>의 종류	41
1) 성적 타락	41
2) 성장되지 않은 자의 이성 사랑	41
3) 음욕	43
4) 자위행위	45
5) 음란물	47
6) 간음, 바람 피우는 것	50
7) 동성 사랑, 동성 연애	53
8. 이성 죄의 회개와 복직	57
1) 회개하여 온전하게 해야 된다	57
2) 타락으로 보는 사랑과 타락으로 안 보는 사랑이 있다	57
3) 고쳐야 자유로워진다	58
4) 이성죄, 자위행위도 무너지면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야 된다	59
5) 이성 문제는 옆의 사람이 딱 붙잡아 줘야 나온다	59
6) 이성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사명을 해야 한다	60
9. '이성'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63
1) 하나님의 최고 좋은 사랑 휴거 역사를 뺏겨 사망의 그늘에 있게 된다	63
2) 사탄과 함께 담대하게 속인다	65
3) 영이 휴거되었어도 타락하면 다시 해야 한다	65
4) 중독되어 뇌를 버리게 된다	66
5) 생각이 불의한 쪽으로 굳어지고 죄책감이 연속된다	67
10. '이성 문제'에 대한 관리	68
1) 기도하라	68
2) 생각을 다스려라	69

3) 그 말을 듣지 않아야 한다	70
4) 호기심의 사랑, 유혹을 버려야 된다	70
5) 관리해야 된다	71
6) 오직 확인이다	71
7) 할 수 있으니 하라	71
8) 자기 주변의 나쁜 것들을 없애야 된다	73
9) 불의한 생각이 났을 때 즉시 잘라야 한다	74
10) 참지만 말고, 거기서 나와야 한다	74
11) 혼자 있어도 잘하게 만들어 놔야 한다	76
 11-1. 사연과 실천	 77
1)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이성에 빠지지 않고 살아왔다	77
2) 사랑의 유혹	77
3) 과일을 따먹는다	79
4) '이성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한 회개 조건	80
 11-2. 성경인물	 81
1) 성경인물들과 이성의 문제	81
2) 이성문제의 누명	81
2) 아담과 하와	82
3) 노아	83
4)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아브라함과 롯'	84
5) 요셉	86
6) 삼손	87
7) 다윗	88
8) 호세아	90
9) 예수님	92

10) 간음하다 잡혀 온 여자	92
11-3. 성경	94
1) 이사야 56장 7절	94
2) 마태복음 5장 28절	94
3) 마태복음 22장 37~38절	95
4) 마태복음 25장 1절~13절	95
5) 요한계시록 14장 4절~5절	96
5) 요한계시록 17장 15절	96
11-4. 월명동	98
1) 이성으로 넘어지면 새로운 예비한 자를 세우신다	98
2) '뇌 사랑'으로 월명동 만들었듯이 '뇌 사랑'을 하며 살아라	98
3) 자기 인생을 뺏기지 말고 월명동처럼 개발하여라	99

「한 편의 시」 “사랑 희망”

육적 사랑의 현실은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은
육계의 이성 사랑에는
조금만
희망을 주었고

하나님 세계
영의 사랑에는
사랑의 희망을
몽땅 다 주었다

아예
그렇게
창조하셨다

육적 사랑에는
속지 말고
희망을 조금만 두고
살아라

영원한 사랑은
저 하늘
영원한 세계에만
두셨다

1. <육 사랑> <육체 사랑> <육적 사랑> <이성 사랑>

1) 육체 사랑은 수십억 가지 사랑 중의 하나다

<육체>로 사랑하면, ‘육체 하나’로만 사랑하며 느낍니다.
<육체 사랑>은 ‘수십억 가지 사랑 중의 하나’입니다.
만일 <사랑의 핵심>이 ‘육체 사랑, 하체 사랑’이라면
음식과도, 만물과도, 환경과도, 그림과도, 음악과도, 말씀과도
다 ‘하체’로 관계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합니다.
‘하체’에서 차원을 높여 ‘상체, 뇌’로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하체 차원’에 머물러 있으니,
‘뇌’는 제대로 쓰지 못하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되고,
‘하체’만 자극하며 사는 것입니다.
<육체, 하체>를 가지고서는
‘성적 사랑 하나’만 할 수 있으며, ‘자녀 번성’만 할 수 있습니다.

2) 육체 사랑은 극적인 사랑의 행위다

<육체 사랑>은 ‘극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람은 ‘이 극’ 아니면, ‘저 극’에 처해 삽니다.
‘저 극’에 처해 있으면, ‘이 극’으로 넘어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고로 ‘극적인 사랑의 행위’인 <육체 사랑의 극>에 빠져 있으면,
육적으로 더욱 쏠리게 되어, 반대편 극인 차원 높은 <뇌 사랑>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뇌 사랑의 극>으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결국 <뇌 사랑>을 못 하니 한계에 부딪히고,
사랑을 곤고하게 생각하면서 그제야 이성을 멀리하게 됩니다.

3) 사랑의 핵과 본질은 육체 사랑이 아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면, ‘남자와 여자’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남녀의 육체관계로부터 오는 흥분과 쾌락’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육체 사랑이 없으면 무슨 기쁨이고 무슨 재미냐? 남자는 여자를

모르면 재미없고, 여자는 남자를 모르면 재미없다. 모르고 사는 사람은 바보다.” 합니다.

만일 ‘육체 사랑’ 이 <사랑의 핵심>이고 <사랑의 본질>이라면, 사랑은 ‘육적인 것, 성적인 것’ 만 생각하며 ‘성적 기능’ 을 하는 사람들만 누린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육적인 사람들’ 만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육체 사랑’ 이 <사랑의 핵심>이고 <사랑의 본질>이라면, 아직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들이나, 나이가 들어서 육체관계가 불가능한 노인들이나, 젊어도 성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많은 사람들과, 하늘을 위해 이성을 초월하여 사는 자들은 ‘사랑’ 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사랑의 핵, 사랑의 본질>은 ‘육체 사랑’ 이 아닙니다.

4) 육의 사랑은 사랑해도 일순간이다

◆ <육에 속한 희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순간 음식을 먹는 것’ 과 같아서, 먹고 순간 배부르고 끝난다.

<육에 속한 이성 사랑, 세상 사랑>은 모두 ‘한때 한순간’ 이다.

<세상 사랑, 육의 사랑>은 사랑해도 일순간입니다.

그 사랑이 오래갈 줄 알고 호기심에 <세상 육의 사랑 꽃밭>에 뛰어들었으나, 꽃은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만 푸른 들판에서 살다가 그때가 지나면 저 버리듯 세상 육의 사랑은 잠깐 자고 깨는 ‘꿈같은 삶’ 을 살고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 몰라서 <생각과 판단>을 잘못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9. <핵>으로 느끼는 것은 오래 못 느낀다.

<이성의 핵>은 ‘금단의 열매와 생명나무’ 다. 이는 몸 지체의 일부분이다.

고로 이것으로는 기쁨과 흥분을 느껴도 순간이다. 하나님은 아예 그리 창조해 놓으셨다. <각 지체>도 ‘몸 지체의 일부분’ 이다. 고로 지체 하나로만 느끼면, 잠깐이다.

가령 모든 지체는 가만히 있고, ‘발 지체’ 만 주무르고 자극을 주면 ‘발의 피곤이 풀릴 때까지’ 는 시원하고, 편안하고, 그로 인해 기쁘고 흥분된다. 그러나 발의 피곤이 다 풀렸는데 계속 주무르면 그때부터는 싫고, 아프고, 고통이다. 흥분이 끝나서다.

이는 마치 배고파서 밥을 배불리 먹었는데 계속 밥을 먹는 격이다. 고로 고통이다. 이같이 <몸의 각 지체들>은 흥분시켜도 ‘한계선’ 에 매여 있다. 고로 기쁨도 흥분도 짧다. <이성>도 그러하다.

서로 사랑해도, 순간의 자극과 흥분이다. 한계선까지다.

10. <신경이 느끼는 느낌>이 강할수록 ‘순간’ 이다.

이는 <강한 성격을 가진 자>가 순간 화를 내고 끝내는 격이고, <성격이 급한 자>가 3배 빠르게 밥을 먹고 순간 기쁨과 흥분을 느끼고 끝내는 격이다.

11. <느낌>은 ‘뇌’ 와 ‘이성(異性) 신경’ 이 가장 강하다.

12. <뇌>에도 특히 핵으로 ‘이성 신경’ 이 있다.

고로 성적 지체가 흥분하면, ‘뇌의 이성 신경’ 과 일체 되어 뇌도 같이 흥분된다. 이때는 뇌의 생각으로만 흥분되지 않고, ‘뇌의 이성 신경’ 과 일체 된 몸 지체도 같이 흥분된다. 생각으로 이성을 상상하면, 마음과 생각으로만 흥분되고 끝나지 않고 ‘뇌의 이성 신경’ 과 연결된 ‘성적 지체의 신경’ 에도 시동이 걸려서 그 지체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뇌에서 자극이 되면, 그로 인해 흥분액도 분비된다.

이같이 <몸 지체>가 흥분되어 느끼면, 그와 연결된 ‘뇌신경’ 도 같이 흥분되어 느낀다.

13. <지체 하나>로만 느끼는 것은 ‘순간 흥분, 순간 기쁨’ 이다. 특히 <핵>으로 느끼는 것은 가장 크고 강하게 순간 느끼고 끝난다. 이는 마치 소리를 큰 소리로 높게 지르면 오래 못 가고 순간 끝나고, 작게 저음으로 소리를 내면 4~5배 정도 오래 가는 것과 같다. 또한 <물>도 극으로 뜨거울수록 오래 손을 못 넣고 순간 느끼고 끝나고, 따뜻할수록 오래 느낄 수 있는 것과 같다.

5) 육적 사랑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 간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고로 사랑도, 미움도, 이성도, 영광도 다 ‘한계’ 가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한계>를 정해 놓으셨냐고 물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에게도 ‘한계’를 두어 계속해서 ‘정상’을 향해 도전하게
 하시고,
 그것이 <영혼>으로 연결되어 무한하게 오르게 하셨습니다.
 <육>과 ‘영’은 다릅니다. 그래서 <영의 한계>는 ‘육의 한계’와 다릅니다.
 <영>은 늙지 않으니 ‘한계’를 맞으면 ‘희망’도 끝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차원 높여 오르게 하셨습니다.
 <자기 육신의 행위>를 통해 <영혼>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 만들게
 하시고,
 거기서 구간마다 <한계>를 두어 계속 차원을 높이고 만족하면서
 이 차원에 오르면 다음 차원으로,
 다음 차원에 오르면 또 그다음 차원으로 무한하게 오르게 하셨습니다.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니,
 <사랑의 만족한 대상>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육체관계>로 극치의 기쁨을 느끼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주관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고로 사람이 육적으로 성적으로 극치의 기쁨을 느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다 그 한계선에서 끝날 뿐입니다.
 이는 마치 ‘술’과 같습니다.
 술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어도 ‘술’은 역시 ‘술’에서 끝납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취하고, 먹으면 먹을수록 제정신을 뺏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이 아무리 발달해도 세상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육적’으로 빠지고 취합니다.
 가면 갈수록 타락되어 곤고함에 빠질 뿐입니다.
 <육체관계>는 ‘생명이 탄생하고 번성하는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15. 인간이 마약, 환각제, 흥분제를 배가 터지도록 먹고 사랑해도, 하나님은 그
 량 줄 아시고 ‘이성으로 느끼는 신경’은 한계를 두고 작게 만들어 놓으셨다.
 <금덩이>로 말하면, <뇌신경>은 ‘금 2000돈’ 정도 크기로 만드셨고, <이성
 신경>은 ‘금 한 돈’ 정도 크기로 만드셨다. <이성 신경>은 마치 <금 한 돈>

으로 반지 하나를 만들어 사랑할 때 ‘사랑 표시’로 손가락 하나에 끼는 정도와 같다. 고로 <이성 신경>으로 느끼면 ‘손가락 하나’ 정도로 느끼듯 하고, <뇌신경>으로 느끼면 ‘몸 전체’로 느끼듯 한다.

16.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뇌>로 영적인 것도, 혼적인 것도, 마음과 생각도 다 느끼도록 ‘금 2000돈’ 같이 크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창조 목적도, 사랑 휴거도 이루게 됐다. 이것을 모르고 성장기 때 미디어, 인터넷, 음란물 등 각종 이성에 속한 것에 빠져 사나, 모두 ‘소꿉장난 사랑’에 불과하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성에 속해 사는 자들은 차원이 낮으니, 일반 사람들과 못 어울리고 끼리끼리 뭉쳐서 살게 된다. 그 시간에 ‘영을 위해 사는 삶’을 살고, 휴거되어 영원한 길을 가야 된다.

6) 육적 사랑만으로는 곤고하다

세상에다 젊음과 사랑과 돈을 투자한 미련한 자들은 다 문전걸식자가 됐습니다. 돈에 절절매고, 시간에 쫓기고, 사랑에 곤고하고, 그 마음은 고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6.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서 성격이나 행위 등 실체가 다 맞지는 않는다.

7. 누구나 시장에서 과일을 사 먹듯, 누구나 <사랑>은 다 맞다.

하나님이 보실 때 ‘뜻’이 서로 맞아야 되고, ‘사는 길’이 서로 맞아야 된다.

사랑 외에 수십 가지가 맞아야 된다.

8. 흔히 사람들은 “궁합이 맞으면 산다.” 하는데, 이는 불확실한 말이다.

사랑 관계를 해서 안 맞는 자가 어디 있느냐. 무지한 말이다.

<뇌 과일>이 맞아야 된다. <육 과일>은 맞아도 일순간이다.

10. 세상에서도 ‘사랑’만 하면 다 같이 살 것 같아도, ‘생활’이 맞아야 되고, 서로 ‘생각’과 ‘사고’가 맞아야 되고, ‘뜻’이 맞아야 된다. 그래야 ‘뜻’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어 희망으로 살게 된다.

11. <육 과일 사랑>은 실상 생활하면 처음과 100% 다르다. 식구 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12. <물건>도 사기 전과 후는 다르다. 사 놓고 처음에 자기 것이 됐을 때는 더 좋아 써도, 오래 쓰고 나면 호기심이 없어지고 다른 물건을 더 좋아하게 된다.

<음식>도, <각종 과일>도 그러하다.

13. <이성 사랑>도 호기심에 의해 세상으로 나가서 실컷 해 봐도, 몇 달이 지나면 ‘영적 고통, 내적 고통’ 이 닥친다. 그 고통은 상상을 못 한다. 마음이 곤고하고, 영적으로 곤고한데 ‘먹는 것’ 을 준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격이다. <마음>이 편해야 ‘육’ 도 편하듯, <영>이 편해야 ‘인생’ 이 편하다. 이를 알고 살아야 된다.

7) 이성에 빠진 자는 사망의 영이 된다

16. 어떤 자는 이성 사랑에만 속해서 하루, 한 달, 일 년, 십 년씩 이성의 사랑 관계만 하고 살았다. 또 어떤 자는 이성 사랑과 상관없이 매일 생명을 전도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께 속해 살았다. 그 ‘결국’ 이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성에 빠진 자>는 그 행위대로 ‘사망의 영’ 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해 산 자>는 휴거되어 ‘영원한 사랑 세계, 천국 황금성’ 을 차지했다.

17. <이성에 속해 산 자들>은 ‘이성’ 을 껴안고 좋아하며 봄날의 나비같이 산다.

고로 삼위를 차지하고 사랑하며 사는 자들은 그들을 비웃고, 정상을 떠나 사는 삶이니 무시하고 살았다. 결국 꽃이 떨어지니 봄날의 나비가 떠나듯 그들의 세상은 그것으로 끝났다. 오직 삼위를 껴안고 사랑하며 산 자들만 ‘삼위의 신부’ 가 되어 ‘천국 황금성’ 을 차지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궁’ 에서 살아간다.

18. <이성과 자기 근성을 못 끊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걸려서 육과 함께 그 영혼이 ‘사망의 그늘’ 에 있다.

19. <육>이 1000년을 살아도 온전히 살아야 <영>이 온전한 세계에 간다.

20. <미완성된 영>은 ‘미완성의 세계’ 로 간다.

8) 세상의 큰 사랑을 육적 사랑으로만 사용한다

1. 세상에서 참으로 크고도 큰 것이 사랑인데, 사람들은 너무도 큰 사랑을

너무도 작게 사용하고 끝난다. 이는 육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2.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랑해야만 잠재해 있는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며 이 크고도 큰 사랑을 무한히 영원히 사용하게 된다.

3. 아무리 큰 사랑이라도 육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쓰면 10000분의 1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용하면 10000배, 100만 배 그 위력을 사용하게 된다. 영원히 크게 사용하니 육적으로 사용할 때보다 100만 배 더 사용한다고 할 수도 없고, 1억만 배 더 사용한다고 할 수도 없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차이는 수학적으로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4. 사람들은 저마다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육적으로, 이성적으로, 쾌락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쓰고 자기 영혼을 위해 써라. 그러면 영원한 사랑으로, 범우주적인 사랑으로, 천국적인 사랑으로 쓰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이 수백만, 수천만 가지이니, 그것들을 사랑하며 ‘사랑의 기쁨’을 누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 ‘육체 사랑, 하체 사랑’만 하면서 “음란물을 보면서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고, 성적 지체를 안 쓰고 살면 무슨 재미로 사냐?” 합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모르니 죄를 짓는다. 고로 모두 알게 가르쳐 주자.” 하셨습니다.

9) 온전한 <육 사랑>의 의미

흔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육 사랑>은 안 된다.” 하면서, <영 사랑>으로만 가르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육 사랑>을 안 하면, ‘신앙’도 끝납니다.

그렇다면 <육 사랑>은 무엇일까요?

<육신>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낮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노래하고, 영광 돌리고,

<육신>이 각종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 <영>이 합니까?

사람들은 흔히 “<육>으로 사랑한다.” 하면, <이성 관계, 육체관계>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육 사랑>이 아니다. <영 사랑>이다.” 라고만 가르칩니다.

글자 하나로, 혹은 점 하나로 ‘다른 글씨’가 되듯이,

그런 설명 하나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다른 의미’가 됩니다.

제대로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성자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38절 말씀으로 <최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성약역사>에서 이룹니다. 여기서 <목숨>이 ‘육’입니다.

<육신>이 ‘생각’과 함께

- 하나님을 찾고 대화하고, 노래하고, 영광 돌리고,
- 회개하여 자기 혼과 영을 깨끗하게 하고,
-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자께서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육 사랑>이 안 된다고 인식하고 가르칩니까?

그런 관(觀)을 가진 자들이 “<육 사랑>은 안 돼.” 하니,

어린 자들이나 영 사랑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자들은

“그럼 <육>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고, <육>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고로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자는 이미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곧 “<육>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육>을 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고로 <육>을 빼면 말로만, 정신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격입니다.

이는 ‘관념 사랑’입니다.

혀를 잘못 놀리면 다른 말이 되고, 다르게 인식시키게 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핵’인데,

<사랑>에 대해 잘못 말하면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 사람들은 <사랑>하면, ‘이성 사랑’을 생각합니다. 역시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하면, 이성 사랑의 단어는 안 쓰시고 생각도 안

하십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은 ‘영’ 이시라, 그 사랑은 <영적 사랑>입니다. 정신적 사랑, 혼적 사랑, 영적 사랑입니다.

▶ 삼위와 예수님께 <육적 사랑>이 있다면,

- 육이나 영혼이 사망으로 가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어 하나님과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주는 것이 육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 관리해서 생명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육적 사랑입니다.

이성만 육적 사랑이 아닙니다.

- 또 불쌍한 자를 돕고,

- 아프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같이 건강하게 해주는 이것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원하는 육적 사랑입니다.

- 또 말씀을 전해주고,

- 희생하여 대신 고통을 몸소 겪어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예수님도 원하는 육적 사랑입니다.

2. <영 사랑> <영적 사랑>

1) 삼위와의 신적 사랑이다

19. 세상에서는 육체로 이성 행위를 하며 사랑하지만,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의 사랑은 육체끼리 하는 사랑이 아니니 다르다.

<삼위와의 사랑>은 육적인 사랑 관계가 아니라 ‘영적 사랑’이다.

<영적 사랑>도 마치 남녀가 서로 사랑하듯 한다. 그러나 남녀의 이성적 사랑보다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높고 깊고 넓은 ‘삼위와의 신적 사랑’이다.

<삼위와의 사랑>은 ‘영적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육적, 정신적 사랑을 다 합쳐도 비교도 안 되는 사랑이다. 영과 영의 사랑, 육과 영의 사랑이다.

20. 가령 남녀가 사랑하는 것보다 ‘음식’을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질’이 다르니 음식과 사랑의 관계는 못 한다. 과일은 입으로 먹고 맛을 느끼며 사랑하듯 한다.

이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영체’이시니 인간이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되어 극적으로 사랑해도 ‘질’이 다르니 육과 같은 사랑의 관계는 못 한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해서 과일을 먹을 때 온몸의 신경과 뇌가 느끼듯이,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삼위를 사랑하면 온몸의 신경과 뇌신경이 그 사랑을 느낀다. 마치 과일을 먹으면 ‘입’에서 맛을 느끼듯이 ‘뇌’에서 그 사랑을 느낀다. 이런 사랑을 삼위와 하며 ‘신부 역사’를 펴 나간다.

사람들은 ‘사랑’하면 이성 사랑으로 인식하고 이성으로 흘러가고 대해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나 정신, 생각들은 절대 안 됩니다. 죄가 됩니다.

오직 아가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육체의 이성적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이것이 나 예수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하셨습니다. (요 14:21)

육적인 이성 사랑은 연애하고 결혼해서 사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사랑입니다.

“〈구약〉은 ‘육적 역사’ 다. 〈신약〉은 ‘영적 역사’ 다.
 〈성약〉은 ‘영적 사랑의 역사, 최고 사랑의 역사’ 다. 했지요?
 * 〈육과 혼과 영〉 중에서 ‘영’ 이 최고입니다.
 이 시대는 〈영과 사랑 일체 되는 최고로 차원 높은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 〈구약 때〉는 ‘육신’ 을 살인한 자만 살인했다고 하지,
 〈마음〉으로 미워한 것은 살인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육신’ 으로 간음한 것만 ‘간음죄’ 로 봤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범한 것은 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때〉부터는 ‘마음’ 으로 간음했어도 간음죄로 보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성약 때〉부터는 ‘영과 사랑 일체 되는 시대’ 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 〈영〉을 다르게 보면, ‘사랑’ 입니다.
 고로 〈사랑〉에 있어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2) 육과 영을 구해주는 최고의 사랑이다

남녀의 사랑은 육 사랑으로서 육과 같이 사라지는 사랑이다.
 영을 구해 주고 육을 사망에서 구해 주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 이다.

〈육체 사랑〉은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육체 사랑〉으로 ‘구원과 휴거’ 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을 뇌 속에 꼭 채우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육체 사랑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며 살면,
 ‘육’ 도 구원받고, 그 〈뇌 사랑〉으로 인해 ‘영’ 도 변화되어 〈휴거〉를
 이루고 〈영원한 황금성〉을 차지합니다.

3) 성약 시대 신부급 사랑이다

<사랑>도 ‘형제끼리 사랑하는 세계’가 있고,

‘애인이 되어 사는 세계’가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도 그 사랑의 대상이 ‘시대’에 따라 다르다.

<구약> 때는 ‘종급 사랑’이고,

<신약> 때는 ‘자녀급 사랑’이고,

<성약>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신부급 사랑’이다.

<신랑을 맞은 자들>은 가정에서 한 형제들과 살다가 ‘신랑 집’으로 떠나간다.

<신랑이 사는 세계>로 가니 ‘환경’도 다르고 ‘삶’도 다르다.

<하나님>은 이 시대 ‘신랑’이 되어 주시고,

<성자>와 <성령>도 ‘사랑의 실체 대상’이 되어 주셔서 사랑하며 살아간다.

5. <이성의 사랑>은 많은 사랑 중에 그 센터 ‘하나’다.

6. <하나님의 사랑>은 ‘신적 사랑’으로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

7.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마치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해 주면서 각종 다른 면으로도 도와주고 귀히 여기고 함께해 주고 좋아해 주는 것과 같다.

다만 지금은 신부 시대이니, ‘휴거된 영’만 그러한 사랑을 받는다.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이와 같은 차원의 사랑은 못 받고,

그 시대 차원대로 ‘종급 사랑’과 ‘자녀급 사랑’을 받았다.

8. 결혼한 여자는 남자로부터 ‘상대적 사랑’도 받고 다른 면으로도 각종으로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한 혈통인 형제나 부모로부터는 ‘상대적 사랑’은 받을 수 없고, ‘그 주관권의 혈통적 사랑’을 받는다.

4) 영원한 사랑이다

포도를 <그냥> 먹으면 ‘한 송이’도 못 먹습니다.

그러나 <즙>을 짜서 먹으면 ‘네다섯 송이’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으로만 사랑하면 한계가 옵니다.

그 사랑이 아무리 뜨거워도 계속 <육>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육 사랑>은 한계가 있어서 더 못 하고 지칩니다.

그러나 <뇌 사랑, 생각 사랑, 혼 사랑, 영 사랑>은 무한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포도즙을 짜서 먹는 것처럼, 육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육적인 자>는 ‘육체’ 만 따집니다. 인본주의자입니다. 그러니 ‘육’ 만 생각합니다.

<영적인 자>는 ‘생각 · 혼 · 영’ 까지 다 쓰고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까지 보고 쓰면서 삽니다.

고로 두 배, 세 배, 열 배 이상 행하며 많이 얻고 많이 누리며 삽니다.

<육>으로 만나든, <육>으로 못 만나든

<마음 · 생각 · 혼 · 영>이 흥분되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늘 지속됩니다. <잠깐 사랑>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한때의 사랑>은 한때뿐입니다.

섭리의 삶도, 휴거의 삶도, 사랑의 생활도 매일 계속 지속돼야 합니다.

사람의 <인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식을 뒤엎어야 ‘진리’ 가 들어잡니다.

고로 인식을 뒤엎으려면 ‘합당한 비유’ 로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육 사랑>을 좋아하는 자에게 “육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권태가 있다.

육의 사랑으로는 얻지 못하는 ‘황금 같은 사랑’ 이 있다.

너도 배우고, 그 사랑을 해 보아라.” 하고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며 희망을 주면서

무한한 전능자 신의 사랑, 영의 사랑, 배의 뜻의 사랑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5) 하나님적 사랑을 먼저 배워야 된다

37. <하나님적 사랑>을 가져야 된다.

38. <천국의 사랑>은 ‘마음과 생각’ 으로 한다. 그러면 마치 육신이 이성 사랑을 하듯 기쁘고 즐겁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 이성적 사랑 세계를 나 여호와와의 사랑 전체로 보느냐?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그것은 세상 이성 사랑의 천 배, 만 배, 십만 배, 억만 배도 더 된다.” 하셨다.

39.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이성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사랑의 감수성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사랑하는 자를 만든다고 하니, 루시퍼는 이를 ‘이성 사랑’으로 생각해서 사랑의 감수성을 타고 하와를 꾀었다.

40. <하나님적 사랑>을 먼저 배워야 된다.

41. <사랑>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먼저 배워야 한다.

6)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랑이다

<육적>으로는 ‘육체’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만,

<영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영적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육 사랑 지체>를 내주면 ‘그 사람의 것’이 되듯,

<뇌 사랑 지체>를 하늘 앞에 내주고 그 속에 ‘말씀’을 넣으면 ‘하늘의 것’이 됩니다.

3. 이성의 죄를 범하지 말라

1) 하나님은 이성의 법을 가장 큰 법으로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사랑에 타락하지 말라. 타락하면 죽는다. 이성적 행위를 하면 죽는다.” 고 가르쳐주시고 엄히 명했습니다.

20.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성장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그들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펴려고 하셨다.

<에덴동산의 생명나무>는 ‘아담’이고, <선악나무>는 ‘하와’였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성장하기 전에 ‘이성의 타락’을 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깨졌다.

21. 하나님은 <이성의 법>을 ‘가장 큰 법’으로 정해 놓으셨다.

<이성>에 빠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과 지식과 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과일을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다.” 하셨다.

곧 이성이든 동성이든 누구든 “타락하지 말아라.” 하는 법이다.

나무에 어떤 예쁜 여자가 남자가 올라가서 못 내려오고 있는지,

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는지,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지,

으름덩굴의 가지가 뻗어 올라가서 수백 개의 으름이 익어 있는지,

예쁜 새나 토끼가 나무에 올라가서 “나 잡아라.” 하며 유혹하든지,

아예 올라가지 말라고 <법>을 정하셨다.

◆ 성경에 <수만 가지 법>을 일일이 다 안 쓰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마.” 하고 한마디씩만 하였고

<해야 될 것>은 “해라.” 하고 한마디씩만 하셨다.

어떤 것은 “이런 것은 행하면 다 죄다.” 하였고,

어떤 것은 “저런 것은 다 행해라.” 하셨다.

성경에 다 못 쓰니 <양심의 법>을 주어, 사람이 매일 어디를 가나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고 지키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법>은

- 육과 영을 보호하는 법이며,

- 육과 영의 운명을 좌우하는 법이며,
- 육과 영이 축복과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법이다.

◆ <이 시대의 법>은 ‘신부 법’이다.

이 법을 지키면 <육>도 ‘사랑의 대상체’로 삼아
평생 보호해 주고 사랑해 주며 살게 해 주고, <영>도 ‘황금성 천국’으로
오게 하여

부부같이 애인같이 사랑하며 영원히 기쁨과 사랑으로 살게 해 주신다.
그러니 <법>이 얼마나 좋으냐.

◆ <세상 법>도 ‘하나님 안에 해당되는 법’이니,
기뻐하며 지켜야 육도 영도 편하고 기쁨의 세계다.

◆ <법>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다.

고로 <법>을 지키면 평생 보호해 주고, 사랑해 주고, 원하는 것을 다 주고,
삼위일체를 사랑하며 기쁨으로 살게 한다.

그 대신 <법>을 안 지키면 그로 인해 고생하고, 고통을 받고, 해를 당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도 육도 계속 고통이다.

2) 구원과 휴거되기 위해 사랑에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영혼 구원’을 확신하려면, ‘자기 육의 행실’을 보면 압니다.

만일 ‘자기 육신’이 <육적인 것>과 <성적인 것>만 추구하며 거기에 빠져
살면, ‘영’은 사망에 거해서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의 중심>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육적인 것, 성적인 것’에 쏠려서 살고 있는지,

‘영적인 것’을 중심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구원과 휴거’가 먼저인지 ‘공부, 명예, 물질’이 먼저인지 생각해 보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사랑’이 먼저인지

‘성적인 것’에 쏠려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성이나 동성을 못 끊고 휴거되겠느냐.

<사랑의 법>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이 절대 정하신 법이다.

<이성, 동성 타락>은 ‘배신행위’라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

◆ <사랑에 깨끗한 자>는 ‘사랑의 금 면류관을 받은 자’ 다.

고로 ‘사랑 센터’ 는 계속 ‘문’ 이 열려 있다.

<뇌 사랑, 마음 사랑, 생각 사랑>을 ‘핵’ 으로 해라.

하나님은 <영적 사랑>을 주시는데 <육체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감소시키면,
이는 마치 ‘강물을 연못에다 받는 격’ 이니라.

<완벽하게 한 것>만 ‘작품’ 이 되어 있습니다.

◆ <휴거 인생 작품>도 그러합니다. <휴거의 핵>은 ‘깨끗함과 사랑’ 인데,
이성과 동성으로 죄를 범한 자들은 가지가 부러진 소나무 같아서
‘최고 걸작’ 은 안 됩니다. 영계에서 다 표가 납니다.

◆ 사람이 <온몸>이 다 건강한데 <폐 쪽 하나, 간 쪽 하나, 위 쪽 하나, 대장
쪽 하나>,

혹은 <정신 쪽 하나>가 병들어서 못 고치면,

그로 인해 <온몸>을 다 못 쓰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잘해도 <그중의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그로 인해 <육과 영 전체>가 묶이게 되기도 합니다.

고로 온전히 해야 <온몸>과 <영>이 다 잘됩니다.

◆ 고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으니,

각자 ‘자기 신앙의 병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 입니다.

◆ 어떤 사람도 10가지, 30가지 다 잘했는데 <이성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여

자기는 구원도 휴거도 싫고, 이성 따라간다고 하며 나갔습니다.

44. <휴거>는 ‘육’ 이 시대 말씀을 듣고 ‘의의 행실’ 을 하여, ‘육의
행위’ 를 통해 ‘영’ 을 변화시켜 ‘영’ 으로 된다. 고로 누구든지 배로 더
하면 휴거된다.

그러니 어렵다고 하며 포기하지 말아라.

45. 왜 휴거되기 어려운지 아느냐. 자기를 만들지 않고 행하기 때문이다.

46. 휴거되려 하기 전에 먼저 너를 만들어라. 네 뇌 체질, 생각 체질, 몸
체질을 바꾸면서 먼저 너를 만들어라. 네 모순과 성격을 고치면서 먼저 너를

만들어라. 먼저 육을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해라. 그러면 쉽게 ‘휴거의 영’으로 만들 수 있다.

47. 휴거되기보다 어려운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다. 곧 ‘이성의 죄, 음란물 보는 것, 인터넷의 불의한 내용을 보는 것, 썩는 문화를 접하는 것들’이다.

이런 것은 자기 양심에 찔리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니, 휴거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몇배씩 더 잘한다.

3) 이성의 죄는 하늘나라 천국에 가지 못하고, 사망에 있게 한다

‘자기 영’을 흥측한 형체가 아닌, 하늘나라에 속한 형체로 만들어 휴거시켜 <천국 황금성>에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시대 말씀을 듣고, 힘들어도 이성을 끊고, 음란물을 끊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세상 썩는 문화를 끊고, 만화와 소설을 끊고, 육의 쾌락과 흥분을 일으키는 육적인 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한 마음을 먹고 날마다 말씀을 행하면서 ‘자기 육’을 통해 ‘자기 영’을 ‘영원한 사랑의 영’으로 변화시켜 ‘휴거의 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변화되다가 말고, 만들다가 말면 휴거될 수 없습니다.

<휴거의 영>이 되기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자위행위, 음란물, 이성 행위를 해도 ‘육신’이 안 죽으니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은 죽어 <사망>에 있다.

시험 든 자, 불신자, 배신한 지도자, 이성으로 빠져나간 자들은 배신자와 한 뜻을 이루려고 교활하게 불신합니다. 고로 결혼을 한다고 모두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배신자’는 하늘 사랑의 나라는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령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4) 사탄 마귀의 이성 유혹을 이기고 살아야 된다

이성의 유혹을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이성에 빠지지 않고 이성에 깨끗이 사는 자는 이성에 이긴 자입니다. 승리한 자입니다. 마귀는 남녀 간에 아주 적극적으로 기묘하게 역사하면서 우발적으로 타락을 시킵니다. 이에 빠지지 않은 자, 속지도 않은 자는 이성의 마귀와 귀신들을 이긴 자입니다.

122. 사랑 관리를 철저히 해라. ‘사랑’은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고로 아예 송아지 묶어 놓듯, 사랑이 다른 데 가지 않도록 꽂꽂 묶어 놔야 된다.

123. 이성 생각을 하고, 성적 생각을 하고, 각종 음란물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한다. 아니다. 사탄의 뜻이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각, 축복의 역사, 시대 말씀, 고귀한 사랑, 자신의 귀한 몸을 사탄에게도, 세상에도, 이성에게도, 동성에게도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각>으로 성장시키고 개발하면,
<월명동 자연성전>같이 ‘시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인생’이 됩니다!

가정국, 장년부들은 어린 자녀들을 수시로 교육하여라.

네 가정과 네 자녀를 구하고 멸망받지 않게 하여라. 더 크면 문젯거리가 된다. 섭리사 지도자들도 생명들을 확실히 가르치고 자세히 관리하여라. 사탄은 점점 끌어간다. ‘설마 그러지 않겠지.’ 하고 믿어 주기만 하지 말고 자세히 살피고 교육하여라.

나 예수 외에는 온전히 믿지 말고, 늘 경건하고 근신하여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나의 법을 지켜라.

나의 재림의 때에 타락하면 복직할 기회와 시간이 없다. 회개하더라도 다시 공적을 쌓고 나의 신부가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아라. 결혼식 전에 사고 나면 언제 크게 다친 얼굴을 치료하고 다시 원상회복되어 결혼식을

하겠느냐.

운전도 늘 조심해서 하듯, 네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조심하여라. 인생 운전을 조심해서 하여라. 나의 법, 곧 내가 준 진리로 살면서 절대 누구에게도 마음 문을 따 주지 말아라.

5) 하늘 신부이기에 100% 완전해야 한다

- <하나님과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니,
<모든 죄를 회개>하고 ‘더러움’을 없애야 <정결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됩니다.
- 시대 신부들이니, 무엇보다도 <사랑>에 깨끗해야 됩니다.

33. 안쓰러워도 100% 하자고 했다. 섭리역사는 ‘이성 관계’는 물론, 청춘에는 생각만 해도 불같이 폭발하는 ‘자위행위’ 까지도 못 하게 하면서, 사망의 계곡을 벗어나 생명길로 나왔다. 누가 들어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이해 안 되게 항해해 왔다. <휴거 때>만 아니라면, <하늘 신부>가 아니라면, 아마도 저 기성같이 그냥 놔뒀을 것이다.

34.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하나님도 제대로 대해 주신다.

35.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고생하고, 인간의 한계 법칙에 벗어나도 고쳐라.

안 고치고 살면, 저 배처럼 세상 바다에 침몰하여 생명을 잃게 된다.

36. 신부만큼은 신부로서 깨끗이 단장해야 된다. 저 구시대는 형제들이니 다르다.

37. 신랑이 없는 자들은 자기 몸을 함부로 다루든, 이성 타락을 하든, 자위행위를 하여 힘없이 쓰러지든, 몸에 문신을 새기든, 외롭고 쓸쓸해서 술 담배를 하든,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기다렸던 신랑과 같이 사는 자들은 자위도, 문신도, 술 담배도, 세상 사랑도 해서는 안 된다. 자기 몸이 아니다. 피로 값을 주고 산 ‘신랑의 몸’이다.

어떤 사람은 남자나 여자의 꼴을 못 보고 참지 못해 이성을 쫓아다니다가 이성

죄를 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性)적인 꼴을 못 보고 참지 못하여 음란물을 보고 자위행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깨끗한 꼴을 끝내 못 보고, 마음으로 온전치 못한 생각과 음란한 생각을 하여 자기 마음을 더럽힙니다. 모두 자기 성격과 정신을 고쳐야 됩니다.

◇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은 마치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고 사는 것같이 생각하시며 대해 주시는 시대입니다.

고로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최고로 대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때입니다. 마지막 천 년 동안 그러합니다.

구약 때도 ‘맘과 뜻과 목숨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신 6:5)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해도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입장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어 종의 입장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대죄 기간이 4000년 동안입니다.

신약 때도 ‘맘과 뜻과 목숨 다해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들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마 22:37-40).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였습니다(요 1:12).

4000년간의 종 주관권의 연대죄 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한 혈통이 되는 격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성령, 성자를 맘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자’가 되어 신랑이 신부를 대하듯이 대해 주시는 천 년 역사 시대입니다.

모든 형제도 이웃도 맘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하면 사랑의 이상 세계입니다.

땅에서 이룬 것같이 하늘에서도 이룹니다.

4. ‘이성 죄’의 ‘영적 상황’

1) 천국에는 이성적 사랑에 전혀 생각이 없다

세상에서는 이성적으로 결합하여 상대체를 이루지만,
영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가 아니기에 이성적 사랑에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육체적 사랑으로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천국도 이 세상과 같은 세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마음 안 주고, 몸 안 주면 어린아이라도 어른이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 커서 30대가 되었는데도 자기는 죽어도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거짓입니다. 거짓말쟁이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선조들이 지은 연대죄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최악의 물에 휩쓸려
영원한 지옥의 세계로 둥둥 떠내려가는 자들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망으로 떠내려가면서 거기서 키스하고, 주무르고, 껴안고, 사랑하니
그 죄의 물살이 더욱 심해서 파도가 일어나 급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2) 이성 죄를 지은 자들의 영계 상황

영계에서 <육적 이성 사랑에 빠져 사는 자>의 상황을 보니,
사탄 네 명이 그 생명을 잡고 아예 못 움직이게 하고 다녔다.

그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다.

이성에 빠져 사니, 사탄에게 붙잡혀 자기 마음대로 못 하고 다니는 것이었다.

41. 자기가 좋아서 불의를 행할 때도 그것을 ‘큰 죄’로 안 보고 행하니,
자기가 큰 죄를 지은 것을 모른다. 그러니 지옥에 가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엄청난 지옥에 왔냐고 하며 탄식하고 억울하다고 한다.

42. <육신이 지은 죄>를 ‘영’이 받으니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육신이 죄를 지을 때 혼과 영도 따라서 함께 지었으니, 육신이 죽으면 그 죄값을 혼과 영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죄값을 안 받겠느냐. 그 육체 덩이는 이미 죄값을 받고 죽었고, 그 고통이 혼과 영과 일체 되어 육이 행한 행위대로 고통을 받는다. 그 영은 자기 육신이 행한 것을 깨닫고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지.” 하고 받는다.

43. 이성으로 나간 자의 영을 만나러 영계에 가 보니, 그 주관권의 영계를 다니면서 사망의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 영은 늙은 영으로 변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거지같이 살고 있었다. 거기서 그 ‘영의 뇌’가 그대로 뿌리박고 살고 있다. 그러니 구원은 불가능하다.

◆ 이성 죄나 동성 죄는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마치 ‘그물망에 물고기가 걸리듯’ 다 <하나님의 법>에 걸립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성과 동성 죄를 범한 자의 영’을 봤는데,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예쁜 물고기>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쁜 물고기를 잡아서 찌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찌개로 만들기 전에 그 물고기를 잡아갈 때 돈을 주고 사니, 그제야 벗어났습니다.

황금 덩이를 한 덩이씩 주듯 모두에게 ‘자기가 행할 몸’을 줬다. 고로 누구든지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주관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힘들어도 행하여라. 제대로 안 한 일은 안 한 대로 그냥 있고, 한 일만 만들어져서 남아지듯 <자기 몸을 가지고 행한 자>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지상영계에 가서 보면, 그 영들이 세상에서 자기 육이 산 대로 거기에서도 그 마음과 생각으로 살고 있다. 과격하고, 무지하고, 음란하고, 술과 담배를 하고, 이성애 빠져 산 대로 ‘영’도 그 생각과 행위대로 살아간다. 거기서 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 버릇을 못 고쳐서 못 벗어나면, 때가 되어 더 악한 세계로 가게 된다. 그곳은 그전보다 100배나 더 고통을 겪는 곳이다. 지옥이다.

◇ 어떤 자가 섭리 오기 전에 자기 영이 지옥에 갔는데 나오는 길이 없어서 두려움과 공포로 떨어다 했습니다.

자기 앞에 많은 자들이 가는데 블랙홀로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

자기도 이를 갈며 도망치려 하나 계속 딸려 갔답니다.

순간 쇠문이 있어, 누가 끌어내어

“이리로 나가라.” 고 하여 나오고 보니 월명동이였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실제 사망으로 가는 자이었는데 전도자가 이끌어 내서 월명동에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월명동에 와서 보니 자기가 꿈에 본 월명동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환난 때 이성으로 세상에 나갔습니다.

이성은 이같이 다시 사망으로 가게 했습니다.

3) 세상, 이성 사랑할 때 꿈에 보이는 모습

67. 세상을 사랑하고 이성을 사랑하면,

꿈에 사탄이 그 대상을 쓰고 나타나 사랑하는 것을 보인다.

이는 육적으로 타락하고, 세상과 이성과 이같이 연혼했다 함을 깨달으라고 계시하여 보여 준 것이다.

68. 타락하면, 자기 주권을 잃고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하고 산다.

4) 성장하지 않은 자들의 이성 죄의 영계 상황

아직 성장하지도 않은 자들이

이성을 먼저 알고 그 길로 가니 어렸을 때부터 사망으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란한 인터넷 사이트, 음란한 놀이, 음란한 비디오, 음란한 TV, 음란한 그림으로 인하여 그 귀한 생명이 유혹되어 사망으로 말려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사탄에게 끌려가 이빨이 부러지도록 맞고, 뺨을 맞고, 채찍질을 당하며

각종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5) 자위 행위를 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볼 때 신앙의 불구자이다

시간의 칼자루를 쥐고 자기 모순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불구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게으른 자, 뒤에서 구시렁대는 자, 형제를 비판하는 자, 형제를 쥐고 다스리는 자, 자기중심대로 하는 자, 모순과 나쁜 성격을 고치지 않는 자, 자위행위를 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볼 때 난쟁이, 절름발이, 사지와 같은 신앙의 불구자입니다.

즉시 고쳐야 됩니다.

5. 이성 문제, 이성 타락의 원인

1) 아담과 하와의 이성 타락

인류가 종교의 역사를 시작할 만큼 성장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택하여 종교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여 ‘이상세계’를 이루려 하셨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성장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성으로 타락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2.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아담과 하와’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서 심판을 받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

3.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태함을 받기 전 상태로 나가 살게 됐다.

20.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성장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펴려고 하셨다.

<에덴동산의 생명나무>는 ‘아담’이고, <선악나무>는 ‘하와’였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성장하기 전에 ‘이성의 타락’을 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깨졌다.

21. 하나님은 <이성의 법>을 ‘가장 큰 법’으로 정해 놓으셨다.
<이성>에 빠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과 지식과 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에덴동산의 하와를 애인 같이 사랑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애인으로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육계에 있는 애인 같은 자를 길렀으니 하와 앞에 아담이 아닙니까? 그를 성장한 다음에 사랑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인 같이 사랑하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종이 봤습니다. 종이 누구입니까? 천사같이 부리는 자들입니다. 부리는 자들이 보고서 너무 소외감을 느낀 것입니다. ‘에이, 나도 좀 끼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를

사랑하니까 그것을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이, 내가 하와를 사랑하면 하와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고 하와를 사랑했습니다.

그때 하와가 달려갔습니다. 여자는 그렇습니다. 누가 사랑하면 달려갑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선악과’ 입니다.

선으로도 갈 수 있고 악으로도 갈 수 있다 해서 선악과입니다.

‘나는 선악과가 아닙니다. 이제는 일편단심 절대 하늘만 위해서 갑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선실과입니다. 선과 악의 지향이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사람은 선악에 속한 인간 과일, 여자 과일들입니다. 결국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와를 사랑했지요? 거기에서 이성적 타락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저주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버림받은 천사는 계속 이성으로 타락되는 자들을 붙잡고 끄집어가고 붙잡고 끄집어가고 그렇게 갔습니다.

뱀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서운함을 타고 변질되어 하와에게 찾아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만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고 하와를 설득하며 거짓말로 꼬였습니다.

루시퍼는 각종 말로 꼬이고 거짓말을 하며 이성에 대해 말해 주면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못 먹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시퍼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루시퍼는 변질되기 시작하여 사탄이 된 것입니다.

‘성적 타락’은 육신을 가진 자는 육적으로 이성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영이기에 하와의 영적 금단의 열매이자 육신의 핵인 ‘마음’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하와를 육적 이성으로 타락시키기 전에 먼저 이성으로 꼬여 정신 타락을 시킨 것입니다.

사탄은 먼저 ‘정신’을 침범합니다. 천적 마귀는 반드시 정신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합니다. 사탄 루시퍼는 먼저 이성으로 하와의 마음 문을 활짝 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육신으로 행동하게 하여 육신으로 이성 관계를 하게 하였으니, 곧 아담의 육을 쓰고 하와와 이성 관계하여 타락시킨 것입니다.

6000년 전, 그 시대에는 아담과 하와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택하여 종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루시퍼는 하와를 말로 꼬여 마음 문을 열어 이성을 보게 하고 마음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눈으로 이성 세계를 보고, 귀로 이성 세계에 대하여 들으니 하와의

마음에 호기심이 유발되었고 ‘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10대 전후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너무 잘 압니다. TV를 통해 잘못된 것을 보고, 인터넷을 통해 음란한 것을 보니 그 마음에 호기심이 유발되어 마음이 그쪽으로 휩쓸린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보는 대로 해 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성적 본능이 있기에 자꾸 보고 들으면 호기심이 유발되어 결국 마음이 폭발되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10대뿐 아니라 20대, 30대, 40대, 50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그 같은 것들을 보니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호기심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2) 사탄은 이성 사랑으로 유혹한다

깊은 함정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는 못 나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같이 빠지는 것도 있고,
그 중 하나가 먼저 꺾어 유혹되어 빠지게도 됩니다.

다 사탄과 귀신들이 개입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자신들이 타락하였기에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사랑의 타락을 하여도 죄인지 몰랐고 회개도 안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으면 죽는지 알아야 안 먹고, 안 죽게 됩니다. 모르는 자는 사탄이 꺾기 더 좋고, 더 타락시켜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을 깨부십니다. 우리는 알고 사니 젊은 자들이 살아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성은 사랑의 문제를 답을 못 주니, 젊은 자들을 모두 타락시켜 사탄이 점령하여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오면 기분이 안 좋고, 머리가 아프고, 어느 때는 자포자기하게 되고, 어느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느 때는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모든 것이 하기 싫고 귀찮게 여겨지고, 어느 때는 믿었던 것에 의심이 생겨 안 믿어지고, 어느 때는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싶고, 정상이 아닌 각종 이탈된 일을 생각하고 행하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성 사랑’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며 하라고 유혹한다.

사랑의 유혹과 꼬임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의 유혹은 사탄과 귀신들의 꾀를 받아 빠지게 되고,
자기 스스로 약해서 빠지게 되고, 상대가 유혹하고 꾀어 빠지게 됩니다.

3) 각종 음란한 것들로 이성의 죄를 짓게 된다

이성 범죄, 자위행위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등 죄를 지을 때는 항상 사탄이 동참합니다. 사탄이 꼬이고, 호기심을 주고, 눈으로 이성 세계를 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끌지 않으면 그같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음란한 영상과 책자를 안 보면 거의 그런 행위를 안 합니다.
만일 음란한 것을 안 보고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런 자는 불과 소수의 인원입니다.
잡소리를 안 들으려면 귀를 막고 다녀요. 그러면 절대 잡소리가 안 들어옵니다.
눈으로 보고, 봄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마음에 품음으로 몸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나쁜 것을 안 보면 됩니다.

◆ 요즘 악한 자들은 ‘휴대폰’을 통해 ‘옴무’를 놓는다.
휴대폰을 통해 ‘여자’를 보여 주고 만나게 해 준다 하면서 돈을 일부 입금하게 한다.
그리고 돈을 입금하면 ‘여자’를 보여 주고, 그 조건으로 얼마를 더 입금하라고 한다.
그렇게 계속 입금하다가 결국 5000만 원까지 사기 당한 사람이 있다. 섭리사 남자다.
사기꾼들은 ‘미인’을 배치하여 ‘옴무’를 만들어 놓고 그 옴무에 걸려들면, 그 여자를 배치한 남자들이 굶은 사자같이 덩벼들어 각종 수단으로 돈을 뜯어낸다.
결국 뼈만 남아서 돌아온다.
◆ <남의 과일>을 봐서 뭐하려고 하느냐. 인생 무지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걸레>도 ‘금 수건, 금 옷’으로 보이는 것이다.

◆ 모사꾼들이 길에 ‘과일나무’를 심어 놓고 그 나무에 열린 ‘과일’을 따 먹게 하려고, <여자>라는 ‘울무’에 얽히게 한다.

그들은 결국 <갖은 것들>을 다 빼앗고, <집에 있는 것>까지 다 빼앗는 악의 족속들이다.

◆ <지혜>가 무엇이나? ‘판단’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사전에 아예 안 하는 것이 ‘지혜’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생각나면, 마치 모기가 물 때 죽이듯 해야 된다.

4) 모르면 이성, 동성에 빠져 산다

◆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좋아하십니다.

고로 <최고의 것>을 가지고 계시다가 <제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 모르면, ‘자기 것’이 되어 보고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만족하고, 가치를 알고 기뻐합니다.

◆ <자기 자신>도 ‘가치’를 모르고 살면, 만족이 없습니다.

◆ <이 시대 창조 목적의 역사>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가지고 계시다가 섭리사의 때가 되니 택한 자들을 데리고 행하셨습니다.

<최고의 것>을 모르면, 행하고도 만족이 없습니다. 고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 좋은 사랑 휴거 역사>에서 살아도

모르면 ‘세상과 이성과 동성’에 빠져 삽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세상, 이성, 동성>으로 인해 ‘영원한 것’을 뺏긴 것입니다.

◆ 모르면, 100번이고 속습니다. 평생 속습니다. 악한 자들은 술수를 써서 꾀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꾀’에 속았습니다. 고로 ‘영원한 형벌’로 끝났습니다.

섭리인들 모두 ‘사기꾼의 꾀’에 빠지지 말고, ‘이성과 동성의 꾀’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루시퍼는 그냥은 속일 수 없으니 거짓말을 옳은 말처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믿어 버리고 결국 타락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사람을 꼬일 수 없고 타락시킬 수 없습니다.

5) 생명 관리를 잘 못 할 때 이성 사랑에 빠진다

약한 자 관리해주다가 사랑에 빠지고,
전도하다가 빠지고, 외롭다고 같이 놀아주다가 빠지고, 가까이 지내다가
빠지고,
결혼한 자들이 다른 자들에게 빠지고, 결혼한 남자한테 빠지고,
세상 사람들이 돈 준다고 빠지고, 좋은 차 사준다고 빠지고,
생활비 준다고 빠지고, 집 사준다, 방 구해준다고 빠집니다.

6) 할 일을 안 하는 때 이성 문제도 생기게 된다

35. 서로 사랑하는 자끼리도 사랑할 때는 문제가 안 생긴다. 못 할 때 싸우고 헤어진다.
36. 못할 때 이성 문제도 생기고, 음란물도 보게 되고, 자위행위도 하게 되고, 자포자기도 하게 되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말씀도 안 듣게 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게 된다.
37. ‘못하는 때’란, 할 일을 안 하는 때도 해당되는 말이다.
38. 그때 그 순간 그 시간에 꼭 할 일만 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
39. 못할 때, 순간 죄를 짓게 된다.

6. <이성 문제> <이성 죄>의 의미

1) 사랑의 죄다

◆ <사랑>이 깨지면, 다 깨지게 됩니다.

- <하나님의 뜻>도 깨지게 됩니다.
-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깨지게 됩니다.
- <다른 각종 뜻>도 다 깨지게 됩니다.

◆ 하나님은 <사랑>을 ‘목적’으로 두고,
<사랑>을 위해 말씀도 주시고, 믿게도 하시고, 살려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구원’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깨지면, 다 깨지게 됩니다.

• <하나님, 예수님>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사람>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것>을 합하면, ‘사랑 죄’가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이 수백만, 수천만 가지이니,
그것들을 사랑하며 ‘사랑의 기쁨’을 누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 ‘육체 사랑, 하체 사랑’만 하면서 “음란물을 보면서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고, 성적 지체를 안 쓰고 살면 무슨 재미로 사냐?”
합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모르니 죄를 짓는다. 고로 모두 알게 가르쳐
주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성자께서 선생에게 ‘말씀의 붓’을 주셨기에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모두 알고 살라고, 강하게 말씀을 씁니다.

2) 이성적으로 하나님 법을 벗어난 것이 죄다

5. 이성의 마음 죄나 행실 죄에 속한 것도 작으나 크나 하나님 법을 벗어난
것은 죄다.

6. 몸 안에나 몸 밖에나 모두 작으나 크게 행하면 행한 만큼 죄다. 이성은 상대성으로 행할 때 이성 죄다. 남녀 상대, 자기가 자기를 이성으로 자위로 자극할 때 이성 죄다. 생리적인 현상은 죄가 아니다. 마음으로 음욕, 성욕을 품어도 마음의 죄다.

그 대신 마음으로만 형제를 사랑해도 의요, 마음으로만 선하게 대해서도 의다.

7. 하나님 앞에는 깨끗한 옷에 점 하나만큼만 찍혀도 표가 난다. 불의들은 작아도 불의다. 의도 그러하다.

8. 순금덩이에 철이나 돌이 쌀만큼만 섞여도 순금이 아니다.

9. 하늘나라는 선의 빛의 세계다.

10. 빛 속에는 어둠이 일점일획도 없는 것이다.

3) 하나님을 절대 사랑치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이성적 타락과 같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대화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모든 해석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살 때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사랑치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이성적 타락과 같이 취급됩니다.

부부간에도 둘 다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둘이 맺어져야 불신과 배신이 안 일어나고 가정천국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 “하나님보다 주 예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죄다.” 하셨습니다. (마 10:37)

이성의 사랑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타락이며 우상화입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니,
<모든 죄를 회개>하고 ‘더러움’을 없애야 <정결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됩니다.

- 시대 신부들이니, 무엇보다도 <사랑>에 깨끗해야 됩니다.
<사람>이나 <만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 하면 ‘우상화한 죄’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창조자 하나님>보다 <창造物>을 더 사랑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해 드리고,
그다음에 <사람과 만물 사랑>입니다.

4)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야 한다

9. <죄를 짓는 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랑의 목적’을 이루니, 죄를 짓게 된다.
10.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목적>대로 할 때, ‘죄’가 아니고 ‘의’가 된다.
11. <남녀의 사랑>을 놓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이성 죄’요, ‘타락’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면,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12. <노아 때>도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랑하니, 그것을
‘죄’라고 하시고 심판하여 멸하셨다. 그들이 ‘사랑의 대상’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5) 이성으로 흥분돼서 기쁘다고 영광 돌리면 불법이므로 심판받는다

51. 술이나 마약이나 이성으로 흥분돼서 기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는 ‘불법’이므로 심판을 받는다.
52.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하느라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를 알고 그 일을 못 하게 제재시키니, 열심히 안 하고 겨우 신앙생활을 했다.
그동안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 흥분으로 본정신을 잃고 행한 것이다.
이는 마치 운동선수가 약물을 먹고 경기를 한 것과 같아서 메달과 상을 얻지
못한다.

7. <이성 문제> <이성 죄>의 종류

1) 성적 타락

73. 말귀를 알아들어라. 따먹었다 하니, 입으로 먹는 것만 생각하느냐.
그러니 수천 년이 지나도 못 풀고, 평생 가도 못 풀다.

남녀가 사랑으로 취한 것도 따먹은 것이다.

74. 나무가 사람같이 퇴비를 안 먹고 흡수했어도 먹은 것이다.

성경도 그런 식으로 써서, 성적 타락을 따먹은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이성 타락>을 지구상에서 최고의 죄로 다루십니다.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자들을 모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로 섭리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깨뜨린 <사랑의 뜻>을 복직하여
성삼위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이성 법>을 온전히 지키게 했습니다.

이성의 타락도 처음에는 마음에 조금씩 음욕을 품어 타락되다가 점점 행동하며
타락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망을 맞게 됩니다. 자기 습관과 버릇도 조금씩
들다가 아주 체질화되어 고치려면 3년, 7년, 10년씩 걸립니다.

이성이나 동성을 마음에 품거나 만지는 것이 ‘죄’입니다.

생명을 관리한다고 하면서, 상대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고 만지기까지 하면서
애인으로 삼듯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성 죄, 동성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 죄는 ‘휴거에 있어서 치명적인 죄’입니다.

2) 성장되지 않은 자의 이성 사랑

◆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전에
<이성이나 동성으로 흐른 것>이 죄입니다.

◆ 육체관계 하지 말아라. 하면 하나님의 법에 걸린다. - 왜일까?

과일이 다 컸을 때 따 먹어야 되는데, 아직 크지 않은 콩알만 한 것, 대추만 한 것, 알밤만 한 것을 따 먹으니 ‘손해’ 다.

이와 같이 <사랑>도 ‘이상적인 사랑의 법’ 이 있다.

아직 크지도 않고 영육으로 성장도 하지 않았는데 ‘육체관계’ 를 하면, 이는 <때를 지키지 않은 행위>로서 ‘죄’ 다.

때를 지키지 않고 육체 사랑을 하니, 결국 ‘자기에게도 해’ 다.

◆ 아직 크지 않았는데 육체관계를 하는 것은

건물을 다 짓고 쓰라는 법을 줬는데 조금 짓다가 쓰는 격이다.

건물이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쓰니 가치도 모르고, 아름다움도 없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여 ‘손해’ 다. 이에 ‘죄’ 로 규정했다. 건물을 완전히 다 짓고 쓰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고 편하냐. <사랑>도 그러하다.

◆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육체관계를 하면, ‘자기도 손해’ 이고 ‘하나님 앞에도 죄’ 다. 이로써 <하나님의 뜻>을 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목적>도 이룰 수 없으니, 그 죄가 크다.

◆ <때도 아닌데 육체관계를 하는 자>는 임신한 지 한두 달, 서너 달 됐는데 아기가 보고 싶다고 태반에서 태아를 꺼내서 보는 격이다.

이로써 생명을 죽이게 되니, 이는 <하나님의 때의 법을 어긴 것>으로서 ‘죄’ 가 된다.

26. 옥에 갇힌 어떤 자는 자기도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도 자기를 사랑했는데 그 상대가 어린 소녀여서 그 부모가 자기를 고소했다고 했다. 그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했다. 어린 소녀는 고등학생이었고, 그는 20세였다.

그에게 또 사랑하겠냐고 물으니, 이제는 사랑하라고 해도 배신자와는 안 한다고 했다. 고로, 사랑의 대상은 서로 사랑하기에 합당하게 성장해야 되고, 호기심과 실체는 다르다고 말해 주었다. <어린 자>는 ‘앵두나무의 앵두나 뽕나무의 열매인 버찌’ 와 같고, <성장한 자>는 ‘사과나 수박’ 과 같다고 말해 주었다.

27. <뇌의 생각>에 호기심이 들면, 흥분된 상태다. 그때 흥분된 상태에서 뇌가 작동한다. 특히 이성(異性)은 호기심으로 판단하면, 마치 무지개와 같아서 잡으려 가도 실체가 아니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

모든 존재물도 절대 완성되고 써야 되듯, 사람도 절대 그 지체와 생각과 마음과

사랑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완성돼야 된다.

28. <과일>도 성장할 때 미완성의 상태에서 먹으면, 과일의 15% 정도도 효과를 못 낸다.

29. 사과나 배를 보면, 과일로서 최고 극치의 효과를 내는 때가 과일이 익는 시기 중 끝에서 15일 정도다. 이때 최고 극치로 완성되어 과일 맛을 낸다.

<사랑의 완성>도 성장을 다 하고, 마치 과일이 익는 시기 중 끝에서 불과 15일 정도 짧은 기간에 완성되듯 완성된다. <만물의 이치>가 이와 같다.

21. 세상에서 남녀가 서로 좋아서 살면, ‘세상 법’ 으로는 안 걸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이 없으니 ‘하나님 법’ 에 걸려서 말없이 그 형벌을 받게 된다.

22. 특히 젊은 자들과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육성이 왕성하고, 육적으로 발육하는 시기라서 성적인 생각이 수시로 난다.

그러면, 즉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성 생각이 폭발돼요. 이 사랑을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성령님도 성자도 사랑을 받으세요!” 하며 사랑을 발사해라.

그러면, 그 사랑이 삼위께 가는 길에 ‘영 사랑’ 으로 변화되어 간다.

58. <하나님의 법>으로 ‘사랑’ 을 다스려라.

59.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성을 다스리는 것’ 이 성공이다.

60. 먼저 <신앙>으로 성장되면, 어디를 가도 ‘사랑 축복’ 과 ‘물질 축복’ 을 받는다.

그러나 성장되지 않고 <사랑>을 깨뜨리면, ‘사랑 축복’ 도 깨지고, ‘물질 축복’ 도 깨지고, ‘자녀 축복’ 도 깨진다. 모든 축복권이 깨진다.

3) 음욕

◆ <음욕을 품고 음란한 것>이 죄입니다.

마음을 주면 결국 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타락이 곧 육신 타락입니다.

마음이 타락하면 영의 몸은 영의 금단의 열매인 마음으로 이성 관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신이 이성 관계를 한 것과 같이 똑같이 죄가 됩니다.

4. 전능자 하나님은 육도 보시고, 마음·정신·생각도 다 보신다.

5. 마음으로 했어도 의가 되고, 악이 된다.

6. 어떤 사람이 ‘생각’으로 음욕을 품고 한 상대를 사랑했다 하자. 그러면 그 혼체도 그와 같이 한 것이 된다. 또한 생각은 육에 속해 있기에 행위로도 사랑한 것으로 본다.

7. 마음으로만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했어도 마음은 육에 속한 것이어서 그 썩은 마음이 죄가 되어 육체도 죄를 지은 것으로 본다.

8. 가령 1년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 1년 동안 마음과 생각으로만 이성을 사랑하며 지냈다 하자. 육체관계를 한 번도 안 하고 마음으로만 사랑했어도 구원받을 시간에 마음이 썩어 썩는 행위를 했기에 구원받지 못한다. 자기 죄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아무리 대화하고 만나고 말하여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 아무리 만나서 대화하고 있어도 마음이 딴 데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것은 마음이 이미 그 자리에서 떠나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육신이 떠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떠나지 말고 마음이 일체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일체되면 육신이 일체된 것입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마음을 줬다면 그것은 몸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면 몸도 줍니다. 사랑으로 마음을 주고 “나 너 몽짱 사랑한다. 평생 사랑한다.” 그러면 몸을 주는 것입니다. 만나면 몸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못 가게 내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가면 벌써 범죄한 것이다.”

75. 사랑의 행위를 <몸>으로 안 하고 <생각>으로만 해도 ‘한 것’이다. <생각>으로만 해도 ‘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76. <손>으로 안 때리고 <말>로 때려도, 상대가 그 영향을 받아 고통을 받고 해를 받는다. 고로 ‘죄’가 되어 ‘심판’을 받는다.

77. <몸>이 수천 리 떨어져 있어도 <말>로 때릴 수 있다. 그 영향으로 죽기도 하고, 지옥 고통도 받게 된다. 고로 하나님은 ‘생각한 것, 말한 것, 은밀하게 행한 것’ 까지 다 보시고, 선악 간에 ‘죄’ 나 ‘의’ 로 보고 ‘그 행위’ 대로 대하신다.

4) 자위행위

◆ <자위행위>는 ‘축소판 동성연애에 속한 것’ 이다.

‘자위행위’ 까지 <죄>로 다루면서 깨끗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리적 현상인 자위행위까지 금해야 하나?’
하며 한숨 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말씀을 이룰 주인공들입니다.
이 말씀을 이뤄야 하니, 호리라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위행위도 100% 자기 흥분을 시켜 준다. 그래서 다들 최고라고 한다.
인생 해가 질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 보아라. 그 위치가 어디이겠느냐?
그때는 때가 다 가서 돌이키지도 못한다. 결국 <죄>는 ‘심판’ 으로 끝난다.

지금 이 시대는 발달된 시대인데도 세상적으로만 발달되어 원시인들처럼 육적 쾌감에 만족하며 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원시인과 같이 살면 너희도 원시인이 된다.” 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원시인들은 성적 행위와 자위행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마치 생활처럼 여기고 삽니다. 이때에 새 시대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신앙의 원시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섭리사 여러분들은 새 시대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원시인 세계를 벗어나 생명권으로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2. 사람이 죽지 않았어도 쥐약으로 밥을 비벼 먹는다면 얼마나 꺼림칙하겠느냐. 이와 같이 작더라도 죄를 지으면 꺼림칙한 것이다.
3. 가령 사람이 쥐약을 먹어도 안 죽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음식과 같이 쥐약을 먹는다면 얼마나 꺼림칙하겠느냐. 이와 같이 자위행위가 상대와 이성 죄를 지은 것이 아닌 자위적 행위라서 그 죄로 인해 죽지는 않는다 해도 죄를 지었으니 얼마나 꺼림칙하겠느냐.
4. 자기 양말을 빨지 않고 오래 신어서 냄새가 나면 죽지는 않아도 얼마나 썩썩하고 꺼림칙하겠느냐. 자위행위도 이와 같으니라. 그로 인해 ‘상대적 이성의 죄를 짓게 되는 생각’ 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5. 사람이 때마다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하면, 마음도 몸도 얼마나 상쾌하고 깨끗하겠느냐.

‘자위행위’ 도 어떤 상대를 생각해서 일어나기보다 자기 생각, 자기 습관, 마음의 생리적 현상에서 일어난다. 0대 때는 생리적 현상이 없으니 이러한 생각이 안 일어난다.

92. 모두 설교를 듣고 마음은 감동되어 “아멘!” 하고 “100% 실천하겠습니다!” 했다. 그런데 막상 생활 속에서는 10%만 행한다. 왜 그럴까? ‘뇌와 몸’ 이 안 따라 주니 행동이 안 되는 것이다.

93. 마음으로는 자위행위를 참는다. 그러나 행해진다. ‘마음’ 으로는 안 하고 싶는데, ‘뇌와 몸’ 이 하는 것이다. ‘뇌와 몸’ 을 묶어 놓으면, 하고 싶어도 평생 못 한다. ‘마음’ 은 각오하고 다짐해도 금방 변해 버리니 못 막는다.

‘몸’ 은 매 놓으면 꼼짝 못 하고 묶인 대로 행한다. 고로 성자의 욕이 되어라! 마음은 자동적으로 욕을 따라서 하게 된다.

94. 사도 바울도 그 ‘몸’ 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갇힌 바가 되었다. 그 ‘몸’ 을 주께 내주었다. 고로 변치 않고 변함없이 뜻길을 갔다.

95. ‘자기 몸’ 이 성자의 몸이 돼야 한다.

96. ‘자기 몸’ 을 내주지 말아라.

97. ‘마음을 성자에게 맡긴다. 드린다.’ 했으면서, 90%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

‘몸’ 을 성자에게 맡겨라. 드러라. 그러면 그 몸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

98. 네 ‘몸’ 이 성자의 몸이 되어 주면, 다 이긴다. ‘마음’ 은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해도 ‘몸’ 이 없으면 못 한다.
99. ‘마음’ 은 변화무쌍하다. ‘몸’ 은 언제나 오늘이나 그대로 있다.
100. 항상 성자에게 약속하고도 ‘마음’ 은 변했다.
101. ‘몸’ 으로 약속해라. 성자에게 네 몸을 드러라. 성자께서 성자의 마음으로 네 몸을 쓰셔야 된다.
102. 예수님도 만민을 위해서 자기 ‘몸’ 을 십자가에 내주었다. ‘몸’ 이 떠나니 ‘마음’ 도 떠났다.

◆ <자위행위, 음란물, 각종 미디어>도 습관이 되어 거기에 계속 빠져서 산다.
 다른 사람은 그 시간에 ‘황금’ 을 캔다.
 후에 <나쁜 습관과 버릇의 잠>을 깨고 ‘사망’ 에서 나와서 보면,
 <자기가 한 일>을 한탄하며 ‘자기’ 를 원망한다.
 <나쁜 습관과 버릇>으로 인해 얼마나 ‘받을 것’ 을 못 받았는지 모른다.
 <나쁜 습관과 버릇을 고치고 받을 것을 받은 자>만 안다.
 <귀한 것을 받은 자>가 그것을 말하겠느냐.

20. 뇌에서 자위행위를 생각해 놓고 참으려 하면 참아지냐.
 뇌에서 생각함으로 이미 진행했으니, 참지 못하고 하게 된다.
21. ‘뇌’ 와 ‘몸’ 에서 한 번 진행된 것들은
 폭발되어, 몸에서 연속 진행되어 선악 간의 일들을 유발시킨다.
22. 개의 목줄을 끌러 놓고 개가 못 돌아다니게 하려면 어렵다. 아예 끌러 놓지 말아라. 너의 ‘뇌와 생각과 몸’ 도 그러하다. 안 해야 할 것을 끌러 놓고 못 하게 하려면 어렵다. 아예 끌러 놓지 말아라.
23. 자기 자신도 아예 끌러 놓지 말고 다스리면, 다스릴 수 있다.
 끌러 놓으면 못 다스린다.

5) 음란물

체질을 개선하면 ‘육체의 병’ 도 낫고,
 체질을 개선하면 ‘뇌와 생각의 병’ 도 낫습니다.

‘체질’ 이 고쳐지니, 습관 되어 죄를 짓는 것도 안 짓게 됩니다.

- 음란물, 소설, 퇴폐 문화, TV, 게임도 모두 자위행위를 하듯
생활 속에 ‘체질’ 이 되고 ‘습관’ 이 되어 자꾸 보고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6. 사람이 눈으로 무엇을 보면 뇌의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마음으로 생각으로
느낀다. 고로 그것을 정지시키지 못한다.

7. 뇌가 성장된 자, 판단력이 있는 자, 생각하는 것이 높은 자는 항상 무엇을
볼 때 계산한다. 보는 것이 좋은가, 안 보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더 좋은가
판단하고 안 보는 것이 좋으면 즉시 눈을 돌려 딴 것을 보면서 행한다.

8.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TV 예능 프로그램과 연속 속는 연속극이나 보는
자와, 인터넷 게임과 음란물을 보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한 자요, 뇌의 차원과 수준이 낮은 자요, 생각의 정도가 낮은
자들이다. IQ가 높다고 인생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정신적인 수준이
높아야 되고 생각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

9. 뇌가 작동되어 ‘뇌’ 에서 진행하면, 동시에 ‘마음’ 과 ‘몸’ 도 진행한다.

10. 아예 근본인 ‘뇌’ 에서 진행을 못 하도록 뇌에서 <불의>를 허락하지
말아라. 그러면 ‘마음’ 도 ‘몸’ 도 <불의>를 막을 수 있다.

11. 눈으로 쳐다보면, 본 것으로 뇌가 작동되어 진행된다.

진행해 놓고 참으려면, 못 참는다. 고로 아예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

12. 불의한 것은 아예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래야 ‘뇌’ 에서 진행을 안 하여 막을 수 있다.

13. 보고 듣고 만지고 접하여 ‘뇌’ 에서 진행해 놓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 이 참으려면 못 참는다.

14. 마음도 몸도 100% 진행을 안 해야 100% 안 하게 된다.

15. 사람은 누구나 마약이나 흥분제처럼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엄청난 물질이
몸 안에 들어 있다. 고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하면서 뇌에 시동을 거는
대로 흥분되어 반응을 일으킨다.

16. 아예 진행하지 말아야 ‘불의’ 도 ‘죄’ 도 안 행하고, ‘이성의 각종
행위’ 도 안 한다.

17. ‘틈’ 이 있으면, 그 틈만큼 <항아리>에서 ‘물’ 이 빠져나가고 <공>에서
‘공기’ 가 빠져나간다. 이와 같이 <마음과 행동>도 ‘틈’ 이 있으면, 그
틈만큼 문제가 일어난다.

18. <완전한 생각>과 <완전한 행위>만이 완벽하다.

19. TV를 틀어 놓고 안 보려 참으면 참아지나. 만화책, 음란물, 소설책을 꺼내 놓고 안 보려 참으면 참아지나. 이미 진행되었기에 못 참고 본다.

음란물도 ‘한 장, 한 장면’만 보고 안 본다고 하면서 보면,

<뇌>에서 시동이 걸려서 뇌가 보기를 원하게 되니,

<마음>과 <몸>도 꼼짝 못 하고 뇌가 하는 대로 팔려 간다.

‘조금’만 본다면, 눈을 ‘조금’만 뜨고 봐 보아라.

결국 눈이 ‘크게’ 떠져서 다 보게 된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예 가지 말기. 아예 보지 말기. 아예 듣지 말기. 아예 말하지 말기. 아예 생각하지 말기. 아예 만나지 말기. 아예 만지지 말기.’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불펜도, 의자도, 책상도, 가전제품도 모두 <목적>을 두고 만드는 대로 만들어져서 쓰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중고등부나 모두 자기를 만들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TV나 보고, 음란물이나 보고, 소설이나 만화나 보고,

놀거나 하고, 세상 사랑이나 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세상 썩은 문화나 보고 듣고 접하면 <뇌>가 ‘그와 같은 생각’으로 형성되고, 그 생각에 따라서 ‘몸’도 그와 같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크면, <뇌>가 그렇게 굳어서 자기가 만든 그대로 형성됩니다.

<육>도 ‘자기 생각과 행위’대로 굳어지고,

<영>도 ‘육의 생각과 행위’대로 똑같이 형성됩니다.

1.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필사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는 자기를 더욱 온전히 만들게 된다. 더 나아가 <자기>를 만든 것처럼 <남>도 만들어 준다.

2. 동물도 새끼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야수를 보고 좋아서 달려간다.

이와 같이 신앙이 어린 아이들도 잘 모르니 사탄과 악한 자들을 보고 좋아서 달려가고, 봐서는 안 될 TV 프로그램이나 음란물을 좋아서 보고, 세상의 썩은 문화를 보고 좋아서 달려간다. 몰라서 그러니, 꼭 사랑으로 가르쳐 주고 관리해

주어라.

3. 먼저 자기를 만들고 깨닫고 아는 자들이 애간장 태우며 어린 생명들을 자기 생명같이 관리해 주게 된다.

4. 애간장 태우며 자기 생명같이 어린 생명을 관리하는 자는, 성장한 자로서 어느 정도 ‘자기를 만든 자’라 할 수 있다.

5. 어린 생명은 관리해야 된다. 그래야 점점 성장하고, 그로 인해 점점 희망이 생기고, 결국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된다.

6) 간음, 바람 피우는 것

<구약과 신약의 기본적인 법>은 누구나 행해야 됩니다.

-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 안식일을 지켜라.
- 부모를 공경해라.
- 살인하지 말아라.
- 간음하지 말아라.
- 도둑질하지 말아라.
-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법은 ‘어느 시대 누구나 행해야 할 기본법’입니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성약 때나 누구든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상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다고 비유했는가 하면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남편이 있고,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랑 같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같이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와 사랑하고 연애하고 동거하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쫓아내 버리고 버려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살아

왔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결혼하는 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듯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합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저주하시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심판하시고 씨족을 말리다시피 했습니다. 아주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상 섬겼던 시대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육 휴거만 되고 영 휴거를 못 하는 자는 연애는 했는데 연애 기간에 바람을 피우든지, 남자가 원하는 만큼 기대를 못 채워서 결혼을 못 하고 마는 격과 같다.

‘연애’는 육적 휴거와 같고, ‘결혼’은 영적 휴거와 같다.
연애하듯 육적 휴거도 하고, 결혼하듯 영적 휴거도 해야 된다.

9.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남자에게 말하기를 “저 여자는 도덕적으로 별로다.” 했다. 그러면 그 남자는 “아니다. 잘한다.” 한다.

그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니, 모두 좋게 보고 말한다.

10. 그런데 그 여자가 사랑하던 남자와 잘 살다가 남자의 말을 안 듣고 바람피우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다가 집을 나가 버렸다. 그때는 누가 그 남자에게 여자가 나쁘다고 하면,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그러하다.

한 여자가 한 남자와 사랑하고 살다가 다른 자와 간음하여 배신했으니 그것이 작은 죄냐. 돌이키고 같이 산다고 하자.

여자도 돌이키기 힘들거니와, 남자도 용서하고 처음같이 대해 주기 어렵다. 고로 흔들리는 갈대같이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말아라.

결혼식 날을 앞두고 신부가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는 소식을 신랑이 들었으니, 신랑이 어떤 마음을 먹겠느냐. 사랑은 깨졌어도 결혼식은 하겠느냐. 다 깨진 것이다.

만일 은혜를 베풀었다면 기회를 주고 결혼식을 연장할 것이다. 나 예수도 그와

같다.

나 예수를 배신하고 가면 심판의 날이 정해져 그날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아라.

그 심판은 배신하고 간 자의 영혼을 구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심판이다.

진정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고 자기가 하던 행위를 계속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게 된다. 자기가 돌이키지 않음으로 자기 영혼이 사망길로 갔으니, 이런 자는 결국 자기가 자기를 멸망시키는 자가 된다.

남자가 가정에 자기 부인을 두고 부인 몰래 딴 여자와 동거 생활 하면서 자기 부인과는 마음이 안 맞아서 못 산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며 부인을 때리는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남자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과 나 예수와 성령님을 모독한 자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나오기가 어렵다. 그래 놓고 구원받는다며 나를 부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까지 모독하게 됩니다.

이성 문제를 저지른 자들은 절대 자기가 좋아서 하기에 사탄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좋아해서 마음 문을 열어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선악을 놓고 얼마든지 자신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와 악을 알고도 자신이 좋아서 악과 불의를 행합니다. 저마다 악과 불의를 놓고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 가정국, 장년부 중에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자들과 간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너희 영혼을 사망에서 구하여라. 회개해야 사망에서 나온다.

내가 말할 때 자신의 양심이 내 말을 증거할 것이다.

자신이 죄를 짓고도 가볍게 회개하고 또 그 같은 행위를 거듭한다. 나 예수가 다 안다. 내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에 다 띄고, 배치된 천사가 너희 행위를 다 보고한다.

매시간 보고한다. 그에게 정한 날 심판이 돌아온다.

섭리사 안에서 결혼하고도 연애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두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하시니, 깨닫고 돌이켜라.

속이는 자는 점점 성 밖으로 스스로 나간다.

속이고 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주관권 밖’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간다.

7) 동성 사랑, 동성 연애

- ◆ <남자>인데, 여자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합니까?
또 <여자>인데, 때에 따라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정말 무서울 것입니다.
- ◆ <육지>가 바다가 됐다가 다시 육지가 됐다가 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못 살고 죽을 것입니다.
- ◆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한계>를 벗어나서 살아갑니다.
- ◆ <여자>인데 한계를 넘어서 남자 행실의 사랑을 하며 ‘남자’가 됐다가 다시 ‘여자’가 됐다가 합니까.
또 <남자>인데 한계를 넘어서 여자 행실의 사랑을 하며 ‘여자’가 됐다가 다시 ‘남자’가 됐다가 합니까.
곧 ‘동성연애’입니다.
이는 한계를 넘어서 행하는 것으로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난 행위이니,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 ◆ 하나님도 <한계>를 넘지 않고 행하시고,
사람도 만물도 <한계>를 넘지 않게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한계>를 벗어나서 삽니다.
- ◆ 남자는 남자로서 사랑하고, 여자는 여자로서 사랑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미개한 나라는 정상대로 하지 못하고, 법까지 개정합니다.
미개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정상대로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 ◆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자’로서
남자는 ‘남자로서의 사랑’만 폭발되게 창조하셨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사랑’만 폭발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질서를 파괴하면, 제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이상세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해도 무지로 인해 자기 스스로 사랑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 ◆ 하나님은 <사랑의 이상세계가 일어나는 한계>를 정해 놓고

세상도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필요 없이 <한계>를 넘어 노력하고 수고하다가
모든 수고가 헛되어 허무로 끝나게 되고,
자기가 행한 것으로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 하나님도 <한계를 넘는 사랑>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남성’ 으로서 ‘남성으로서의 사랑’ 만 하십니다.

성령님도 ‘여성’ 으로서 한계를 넘지 않으시고
100% ‘여성으로서의 사랑’ 만 하십니다.

3. 하나님은 사람도 만물도 그 존재에 해당되게 아름답고 신비하게 창조하셨다.
4. <여자>에게는 아름다워도 <남자>에게는 아름답지 않은 지체의 형상이 있다.
5. 가령 <여자의 허리>는 잘록하면 아름답지만 <남자의 허리>가 여자처럼 잘록하면, <몸>은 ‘남자의 구조’ 인데 <허리>는 ‘여자 형상’ 이니 매치가 안 되어 오히려 아름다움을 감소시킨다.
6. <여자의 가슴>이 아름답다고 해서 <남자>가 그같이 만들고 다니면, <몸>은 ‘남자의 구조’ 인데 <가슴>만 ‘여자 형상’ 이니 매치가 안 되어 이상한 몸이 되어 아름답지 않다.
7. <남자>는 ‘남자 지체’ 에 해당되게 발육되고, <여자>는 ‘여자 지체’ 에 해당되게 발육되고, 남녀의 구조에 맞춰서 거기에 해당되게 존재해야 아름답고 멋있다.
8. 이와 같이 <동성연애>도 구조가 안 맞는 비정상적 사랑이다.
<몸>은 성별이 구분되어 있는데 <뇌와 마음>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발달되어, 선(線)을 넘고 자기 형상을 벗어나서 좋아한다.
<뇌와 마음과 생각>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발달되었기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른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으로 봐야 옳바르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다른 형상’ 으로 서로 ‘ 짝 ’ 이 되게 창조하셨다.

고로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짝이 되면, 이는 ‘비원리적’ 이다.

마치 같은 쌀밥인데 이 밥 저 밥 넣고 비비는 격이다. 서로 다른 쌀밥과 보리밥을 넣고 비벼야 ‘쌀밥의 맛’ 도 나고, ‘보리밥의 맛’ 도 나고, ‘둘을

섞은 맛’도 나서 ‘세 가지’ 맛이 나니, “맛이 좋다.” 한다. <사람>도 <만물>도 모두 그러하다.

1.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길이 난 것이다.
2. <동성연애자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뇌신경에 길이 난 것이다.
 좋아하는 대로 기뻐하고 흥분된다.
3. <사람>은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고, 먹고, 행한다.
4. <자기 생각이 꼭 차서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동등하게 여긴다. 고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도 이 정도니, 다르겠어?” 한다.
5.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짝’으로 창조해 놓으시고 이것을 절대시하셨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절대시하며,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자>는 자기 차원으로 길이 나서,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짝’으로 사랑해도 만족하니, 이것이 절대적이다.” 한다.
6. <남자>와 <여자>가 절대 ‘짝’이다. 이는 <편지지>와 <봉투>가 ‘짝’인 격이다. <동성연애자>는 ‘편지지’끼리, 혹은 ‘봉투’끼리 짝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고로 ‘한 가지’밖에 기능을 못 한다.
7. <동성연애자>는 자녀를 못 낳듯이, 각종으로 ‘한 가지’밖에 기능을 못 한다.
8. <상대성 짝>은 ‘두 가지’를 가지고 행한다. <짝>은 ‘물레방아’와 ‘물’과 같다.
9. <제시간에 일하는 자>는 ‘시간’과 ‘일’이 짝이 되어 행한다. 고로 ‘남녀 짝’과 같아서 ‘두 가지’를 한다.
10. <제시간에 행하지 않는 자>는 ‘동성연애자’와 같아서 ‘하나’밖에 못 한다.
11. <제시간>과 <제 일>이 ‘짝’이다. 제시간에 안 하면, ‘일’만 있고 ‘시간’이 없다. 혹은 ‘시간’은 있는데 ‘일’이 사라지고 없다.
12.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는 ‘동성연애자’와 같다.
13.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자>는 ‘주체인 하나님’과 ‘상대인 자기’가 짝이 되어 하니, ‘남녀 짝’과 같다.

7. <이성>은 ‘모양과 형상의 짝, 마음과 생각의 짝’이고, <동성>은

‘생각’ 만 짝이 될 수 있다. 동일한 모양이라고 짝이 아니다. <동성>은 모양이 같다.

<이성>은 ‘모양’은 다른데 ‘구조’가 맞아서 짝이 된다.

8. 하나님은 ‘동성의 사랑’을 목적하고 창조하지 않으셨다. <동성 사랑>은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다. 하나님은 ‘이성 사랑’을 창조하셨다.

9. <만물의 이치>로 ‘짝’을 보아라. <암컷>과 <수컷>이 ‘짝’이다. 서로 짝이 되어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

10. <동성>은 ‘생명의 역사’를 못 이루고 당세로 끝난다. <조화의 역사>를 못 나타내고, <두 가지 신비와 웅장과 아름다움>을 보이지 못한다.

11.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짝의 창조를 알지 못하고, 신의 세계에서 살지 못하는 자들은 ‘동성 세계’에서 산다.

12. 하나님이 ‘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우주 만물, 각종 존재물들이 존재를 못 한다. 같은 존재끼리는 당기고 밀지를 못한다. <한 가지>만 존재한다. 이는 <같은 극>끼리는 전기를 못 내는 격이다. <수신기>만 ‘두 개’가 있는 격이다.

13. <그림>도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짝’으로 그리면, 더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고 이상적이다. <개성의 짝>이다.

◆ 현대 사회는 <무분별한 이성 교제>도 문제이지만, <동성연애>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입니다.

◆ 섭리사에서도 ‘동성연애자들’이 몇 명 있어서, 이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영계에서 보니, 역시 ‘죄인’이 되어 묶여 있었고, <거하는 주관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공적인 일, 잘되는 데’서 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일반적인 일’만 시키셨습니다. 그로 인해 <휴거>도 ‘기대하는 위치’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고, 겨우 ‘하(下) 단계의 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계속 회개하지 않고 더 하니, <휴거 선>에서 더 내려와 ‘휴거를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 <영의 세계>는 마치 저울에다 머리카락까지 달 듯이 <죄>도 <의>도 다 달아서 계산합니다. 그러나 <육의 세계>에서는 별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분명! <육신>이 행한 그대로 ‘영’이 타격을 받습니다.

8. 이성 죄의 회개와 복직

1) 회개하여 온전하게 해야 된다

- 사탄은 이성 쪽으로 약해지게 마음이 흘러가게 합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은 용서해줍니다. “70번씩 7번도 용서한다.” 하셨습니다.
<영적 사랑>과 <육적 사랑>을 ‘구분하고 분별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고 다만 미안하게 시키겠냐. 모든 것도 알고, 행함도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고집 · 교만 · 무지 · 게으름 · 악한 생각 · 시기 질투 · 오해 · 섭섭한 마음 · 욕심 · 이성적 마음 · 음란한 마음 · 자위행위 생각 · 거짓말 등 나쁜 것들은 모두 도끼 같은 말쑥으로 온종일 찍어 내고 불살라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도 함께 불살라 사탄을 멸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영적으로 사랑해야 능력을 최고 행하게 됩니다.
이성 쪽으로 생각지 않아야 사탄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두 이성적 마음과 사고들을 회개하고, 죄를 지은 것도 회개하고, 이성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모두 깨끗이 회개해야 됩니다.
어린이들만 빼놓고, 전체가 완전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일부만 회개하고 일부는 회개하지 않으면 또 그같이 육적으로 생각하고 주장하고 전해주게 됩니다. 이 청소 기간 때 다 같이 죄를 깨끗이 회개해야 됩니다.

2) 타락으로 보는 사랑과 타락으로 안 보는 사랑이 있다

6. 뽀뽀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성 행위’에 속하기도 하고, ‘반가움의 인사’에 속하기도 한다.
7. 뽀뽀나 키스는 모두 ‘이성의 행위’에서 온 풍속이 되었다.
8. ‘타락으로 보는 사랑’이 있고, ‘타락으로 안 보는 사랑’이 있다.

9. 사람이 몸을 씻지 않아도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로 인해 마음도 몸도 얼마나 꺼림칙하겠느냐. 혹여 남이 볼까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죄를 지어도 죽지는 않으나 마음도 몸도 꺼림칙하고, 남이 보면 부끄러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으니라.

10. 자기가 책을 썼는데 ‘꼭 써야 될 내용’을 못 쓰고 ‘쓰지 말아야 할 꺼리는 내용’을 썼어도 그것이 죄가 되어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로 인해 얼마나 꺼림칙하겠느냐.

‘자기의 부끄러운 행위’도 그러하다. 그것이 큰 죄는 아니니 <영혼>이 지옥에 안 가고 <육신>이 감옥에 안 갈지라도 스스로 얼마나 부끄럽고 꺼림칙하겠느냐.

11. ‘자기의 부끄러운 행위’를 누가 보고 듣지 않았어도 스스로 꺼리고 부끄럽다. 또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그에 해당되는 천사들과 함께 늘 다 보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

12. 지옥이나 감옥에는 안 갈 행위지만 ‘스스로 꺼림칙하고 부끄러운 행위’라면 그것이 점점 ‘죄’가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며, 그 행위로 인하여 ‘깨끗함에 해당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느니라.

13.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선악 간의 행위’로 나타내느니라. <선한 것>을 품고 있으면 ‘선한 행위’로 나타나고,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 ‘악한 행위’로 나타난다.

14. <단순한 자>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하여 일을 단순하게 해결하지만, <자세한 자>는 자세히 다 보고 행하여 깨끗하게 해결하느니라.

15. 자기 실력껏 노력하고 연구하며 열심히 행했다면, 자기 차원에서 점점 더 높은 차원으로 가게 되어 결국 목적인 곳에 이르게 된다.

16. 삶이 아름답고 깨끗해야 ‘아름답고 깨끗한 것’을 만나게 된다.

3) 고쳐야 자유로워진다

◆ <고치기 전>에는 ‘그전에 하던 것’이 ‘끈’이 되어 매여 있습니다.

고치면, 그 ‘끈’이 끊어져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 다니게 됩니다.

◆ <미디어에 매여 있던 자>가 고쳐서 그 ‘끈’을 끊고,

<이성에 매여 있던 자>가 고쳐서 그 ‘끈’을 끊으니까,

<하나님 주권권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 그 육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욕도 혼도 영도 변화되어 빛나는 모습으로 다니게 됩니다.

◆ <사랑이 병든 자들>은 세상도 사랑하고, 이성도 사랑하고, 동성도 사랑합니다.

이들은 치료해서 고쳐야 ‘휴거 복직’이 되어 그 <욕>도 제대로 ‘휴거의 삶’을 살고,
그 <영>은 비로소 ‘황금성 천국’에 갑니다.

‘술 안 먹기, 담배 안 피우기, 음란한 생각 안 하기, 자위행위 안 하기.’ 등은 자기 욕, 혼, 영의 청결과 성결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고치고 행하지 말아라.

4) 이성죄, 자위행위도 무너지면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야 된다

<야심작> 쌓을 때도

다섯 번 무너지고 여섯 번째에 완전히 쌓았습니다.
그러니 <이성 죄>도 <자위행위>도 무너지면,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야 됩니다.

5) 이성 문제는 옆의 사람이 딱 붙잡아 줘야 나온다

이성 문제는 바짝 가서 다뤄 주면 다 해결됩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넘어져서 본인이 떠내려가면 본인 스스로 못 나옵니다.
옆의 사람이 딱 붙잡아 줘야 나옵니다. 따끔하게 깨우쳐 주고 이끌어 줘야 합니다.

이성 문제 같은 것도 봐두면 본인들이 못 일어나니까
본인들에게 가서 따끔하게 교역자들이 이야기 해주라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틀렸다고 하지 말고 사람이 한번 실수해서 허공에 빠지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그들을 이끌어 내야 됩니다.
본인들이 다 구원자가 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이성 문제가 생기면 교역자가 면담하고 교역자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통해서 면담시켜야 합니다. 회개 안 하면 안 되니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6) 이성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사명을 해야 한다

50. 어떤 사람은 교역자인데 이성 타락을 하고는, 속이고 계속 단상에 섰다. 때가 되니 하나님이 다 드러내어 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한 고로, 회개해도 단상에 세울 수 없다.

51. 휴거되고도 이성으로 빠지거나 술, 담배를 하는 자들은 ‘그 영의 휴거가 상실’ 되어 ‘황금성 천국’에서 쫓겨난다. <그 육>이 땅에서 회개하면서 다시 공적을 세운다. 그래도 <그 영>이 ‘이전보다 못한 세계’로 간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이 ‘사망’으로 가게 된다.

52. 한 번 <휴거>가 깨지면, 복직이 쉽지 않다.

53. 그 해 농사를 실패했으면 다음 해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하듯, 죄를 지었으면 복직되기까지 기간이 필요하다.

54. 하나님은 <법>을 주시며, 절대로 <법>을 지켜야 ‘절대 세계 천국’에 가게 하신다.

55. <이성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단상에 서는 자>는 ‘죄에 죄를 더하는 자’다. 결국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데, 그때는 ‘죄의 형량’이 높아진다. 죄를 지었으면 ‘바로 회개’해야 된다.

56. <이성 죄를 짓고도 사람들이 모른다고 스스로 사명을 내려놓지 않는 자>는 ‘축복’을 뺏긴다. 축복을 거두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에는 아예 ‘사명’을 안 준다. 결국 성령께서 감동시켜 다른 사람을 통해 드러내시고, 회개하지 않음을 책망하시고, 평신도가 되어 살게 하신다. 빗나가지 말고, 맡은 일을 충성으로 하여라.

21. 어떤 자는 자꾸 죄를 짓고, 이성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인본주의에 물이 들어서 그리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선교사나 목사 직책을 가진 자들이다.

더 이상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다. 모두 직책을 내려놓게 했다.

<자기중심으로 선교하고, 자기중심으로 사업하는 자들>은 정상이 아니다.

<사탄의 주관>을 받고 <사탄의 몸이 되어 사는 자>다.

그러면서 편지는 아주 그럴듯하게 온다. 성령이 다 드러내 버리셨다.
이같이 <사고가 잘못되어 행하는 자들>은 모두 보고하여, 말씀으로 정리되게 하여라.

결국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새벽 말씀으로 드러내신다.

22. <썩은 물>이 정화되기까지는 어렵다. 쉬운 것이 아니다.

<고통의 사망>에서 빼내서 살려 났어도, ‘육에 속해 살던 옛 생활’을 또 한다.

◆ 이성 죄나 동성 죄가 있는데 ‘목사’ 라면, 계속 그 직급으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적자’ 라도, ‘사명을 하는 자’ 라도 그러합니다.

회개하여 용서받고 조건을 세우고 근신한 후에 복직될 때까지 <목사>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근신하고 조건을 세워 복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죄’ 는 없어지고 ‘온전한 자’ 가 됩니다.

◆ 이성 죄, 동성 죄가 있는데 <설교 단상>에 서거나 <영광 무대>에 서는 자들은 스스로 자제하기 바랍니다.

누가 몰라도, 누가 안 봐도 스스로 양심이 말하는 대로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서 ‘회개’ 하고 ‘근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복직’ 됩니다.

회개는 안 하고 모르는 척하고 계속 단상에 서면

- 하나님도 성령님도 심정이 상하시고,
- 아는 자들도 심정이 상합니다.

<귀한 것을 모르고 사는 자>에게는 ‘귀한 것’ 을 안 줍니다.

◆ 앞으로는 더욱더 ‘흠 없는 자’ 를 선별하여 <영광의 자리>에 세웁니다.

◆ <노래>도 ‘말씀’ 입니다. ‘곡조 있는 말씀’ 입니다.

<말씀 단상에 서는 자>가 ‘흠’ 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영광의 단상에 서는 자>가 ‘흠’ 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자를 ‘영광의 자리’ 에 세우는 것은 ‘공의’ 가 아닙니다.

◆ <섭리사 새 말씀>이 중요한 만큼, <섭리사 새 노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한 파트’ 입니다.

지금까지 ‘한두 가지’ 만 잘하면, ‘가수’ 로 뽑았습니다.

그렇게 하니, 수준이 낮습니다. 모두 배우고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정성과 신앙’ 을 보고, 두 번째로 ‘실력’ 을 봅니다.

◆ 과일나무의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면, <나머지 가지>에서만 ‘열매’ 가 열립니다.

나무가 수년간 크면, 가지가 다시 자란 만큼 ‘열매’ 를 열게 됩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흠 있는 자들은 다시 온전하게 하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한 만큼, 그 센터에서 귀히 쓰입니다.

9. ‘이성’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1) 하나님의 최고 좋은 사랑 휴거 역사를 빼져 사망의 그늘에 있게 된다

◆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좋아하십니다.

고로 <최고의 것>을 가지고 계시다가 <제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 모르면, ‘자기 것’이 되어 보고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만족하고, 가치를 알고 기뻐합니다.

◆ <자기 자신>도 ‘가치’를 모르고 살면, 만족이 없습니다.

◆ <이 시대 창조 목적의 역사>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가지고 계시다가 섭리사의 때가 되니 택한 자들을 데리고 행하셨습니다.

<최고의 것>을 모르면, 행하고도 만족이 없습니다. 고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 좋은 사랑 휴거 역사>에서 살아도 모르면

‘세상과 이성과 동성’에 빠져 삽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세상, 이성, 동성>으로 인해 ‘영원한 것’을 빼긴 것입니다.

◆ <좋은 장소>에서 살아도 모르니, 누가 띄어 “거기보다는 저기가 좋지.” 하면,

그 좋은 장소를 팔고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휴거 역사>도 100% 알아야 누가 띄어도 ‘신앙’을 안 팔고 ‘딴 데’로 안 갑니다.

절대자 삼위일체의 말씀을 듣고도 흔들리면, <천국>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 사탄도, 악한 자들도 <거짓>을 가지고 ‘참’을 혼듭니다.

<아는 자>는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 <강인한 생각>으로 ‘그 거짓 이론’을 깨 버립니다!

<남녀 이성 사랑, 동성 사랑, 자위행위, 음란물을 보는 행위>는 ‘죄’가 된다.

고로 회개하여 끊지 않으면 ‘황금성 천국 길’을 가다가도 쫓겨나고,

혹은 쫓겨나지 않아도 성장이 안 되고 가다가 만다.

이것을 모르니, 남녀 이성 사랑이나 동성 사랑, 자위행위, 음란물에 길이 들어 행한다.

18. <이성과 자기 근성을 못 끊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걸려서 육과 함께 그 영혼이 ‘사망의 그늘’에 있다.

19. <육>이 1000년을 살아도 온전히 살아야 <영>이 온전한 세계에 간다.
 20. <미완성된 영>은 ‘미완성의 세계’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생활로 돌아가면 이성에 빠지고, 미디어에 빠지고, 세상 각종 것들에 빠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 삽니다.

<그 행위>가 ‘말’이 되는데,

곧 “나는 구원과 휴거보다 이성이 좋아요. 미디어가 좋아요. 세상 것들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더 좋아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휴거>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황금성 천국의 보석 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못하면, 뒤에 와서 조건을 세우는 자들이 주인이 됩니다.

이성, 세상 각종 유혹들, 미디어 등은 ‘천국 가는 데 천적’입니다.

◆ 하나님은 모두 ‘자기 신앙의 병’을 고치도록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1년, 2년, 3년, 혹은 10년 동안 안 고치고 회개를 안 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세계에 참여함>을 금지시키십니다.

마치 ‘혼인 잔치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자’와 같아서 쫓아낸 것과 같습니다.

◆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왜 열심히 했던 사람이 나갔지?’ 합니다.

이성을 못 끊고 수년 동안 계속 동거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숨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아시고 회개하라고 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생활을 했습니다.

<개인에게 준 기회의 기간>에 회개하지 않고 이성을 못 끊으니,

3년이 되니 스스로 양심에 꺼려 섭리사를 나갔습니다.

이것을 전 교인에게 광고할 수도 없습니다.

◆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성이나 동성을 못 끊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섭섭함, 서운함의 병을 못 고치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책임 분담을 못 해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교역자나 형제들과 부딪혀서 나갑니다.

◆ 섭리사를 나가는 자들은 꼭 <문제>가 있어서 나갑니다.

물론 신입생 때 전도되어 제대로 못 배워서 몰라서 나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나갔다고 하기보다, 놓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다 배우고, 잘 뛰다가 나간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문제>가 있어서 나갑니다.

<문제없이 나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이성 문제로 나간 자들’ 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가서는 ‘자기 문제’ 나 ‘잘못’ 은 말 안 하고,

-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더 할 수가 없었다.”

- “누구 때문에 내 갈 길을 못 가겠다.”

- “비전이 없다.” 등의 말을 하고,

- 그러다 ‘악평’ 까지 합니다.

이렇게 섭리사를 나가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 <각 교회에서 잘하던 자>가 나가면,

‘이성 문제가 있구나. 신앙 문제가 있구나.’ 하고 알기 바랍니다.

알아야, 기도해 주고 구해 주지 않겠습니까?

2) 사탄과 함께 담대하게 속인다

76. 누구든지 모르면, <속이는 자>에게 속느니라.

다만 ‘상대를 완전히 믿느냐, 조금만 믿느냐’ 에 따라

‘아주 속든지, 일부만 속든지’ 차이가 있느니라.

77. <사랑의 죄를 짓고 속이는 자들>은 사탄과 함께 담대하게 속이느니라.

<속이는 것>을 알고 말하기 전까지는 계속 속이느니라.

78.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보는 자>는

‘속이는 자의 말’ 을 바로 믿지 않고 <행실>로 확인하고 알게 되느니라.

3) 영이 휴거되었어도 타락하면 다시 해야 한다

2. <휴거된 영>이라도 ‘300선’ 정도의 휴거 상태에서 육신이 제대로 사랑을 안 지키고, 신앙이 식고, 육신의 행위가 이성이나 세상 사랑으로 기울면, 그 행위에 따라 ‘영’ 이 영향을 받고 온도계의 수은 눈금이 떨어지듯

‘300선’ 이하로 계속 떨어진다. 그러다가 <영>이 지상에 내려오게 된다.

이는 마치 ‘밥을 안 먹고 한 달, 두 달 금식하는 자’ 와 같다.

고로 점점 쇠잔해지다가 쓰러지는 것이다.

◆ <자기 잔머리>를 채우려다 ‘젊음’ 다 가고 ‘일생’ 다 갑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작은 머리’ 도 못 채우고 죽습니다.
 섭리사에서도 ‘잔머리 굴리고 잔머리 채우던 자들’ 은 이미 다 나가고
 없습니다.
 섭리사에 남아 있어도 ‘잔머리 굴리는 자들’ 은 지금도 뒤쳐져
 허우적거립니다.
 <이성>에 잔머리 굴리고, <동성>에 잔머리 굴리고, <자기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잠 만족>이나 채우려 하고, <편안함의 만족>이나 채우려 합니다.
 그런 자는 쓸 수가 없습니다.
 ◆ 휴거되고도 그러하니, <휴거 자격 미달>로 ‘그 영’ 이 ‘땅’ 으로 내려와
 다시 ‘의의 아르바이트’ 를 하러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의의 작품’ 을 팔고 다니기도 합니다.

60. 성령님께 물으니 말씀하시기를, “<휴거된 영>도 이성으로 타락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고 배신한 것이니 쫓겨난다. 다시 해야 된다. 그때는 가중된
 조건을 세워야 된다.” 하셨다.
61. <한 번 빛을 받고 타락된 자>와 <빛을 안 받고 타락된 자>는 다르다고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였다.
62. <한 번 빛을 받은 자>란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하듯 하늘과 사랑을 맺은
 자다. <왕과 결혼한 자>가 다른 자를 사랑하면, 형벌을 받게 된다.
63. <휴거된 자>는 6000년 구원역사의 목적대로 삼위와 결혼한 격이다.
 그런데 <이성 관리>를 못 해서 많은 자들이 휴거됐다가 떨어져 그 영들이
 희망을 잃고 땅에서 괴로워한다. 상상도 못 하는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
 땅에서는 괴로워서 못 산다. 그 괴로움이 ‘육신’ 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4) 중독되어 뇌를 버리게 된다

어떤 사람은 ‘이성’ 으로 자극과 흥분을 느끼려고 자꾸 ‘성적’ 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결국 ‘성’에 중독되어,
후에는 더 자극적인 것을 해도 감각이 없어지고 결국 ‘뇌’를 버리게 됩니다.

5) 생각이 불의한 쪽으로 굳어지고 죄책감이 연속된다

<이성>도, <음란물>도, <술이나 담배>도 못 참고 해 버리면
‘순간의 불의의 기쁨’은 오지만,
그로 인해 생각이 ‘불의한 쪽’으로 굳어지고 죄책감이 연속된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 그로 인해 ‘의의 길’로 가니, 기쁨과 희망이 연속된다.
또한 <죄>에 매이지 않으니, 일사천리로 그 주관권에서 얻을 것을 계속 얻고
간다. 불의와 분노를 참고 그 행위를 안 하면, 그 결과가 그리 크다.

10. '이성 문제'에 대한 관리

1) 기도하라

32. <강철 같은 정신과 행동>이다. 섭리사뿐 아니라

개인 · 가정 · 민족 · 세계 · 각종 종교 · 정치 · 경제 · 기후 · 악한

자 · 사기꾼 · 폭력배 · 언론 · 이성의 썩는 행위를 놓고서 기도해라.

33. 전 세계에 ‘이성의 죄인들’ 이 최고로 많다. 그 행위로 인해 심판받을 자들이 45억 명이나 된다. 목욕탕, 사우나, 술집, 안마시술소, 퇴폐업소, 문화 예술 세계, 학교, 종교, 이단 세계 등 ‘약 300개 종류의 세계’ 에서 매일 ‘썩은 이성 행위’ 를 하며 ‘소돔과 고모라 성’ 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 매일 기도해라.

13. 자기는 마음에서 전혀 원하지 않는데, 정신적 현상에서 죄의 생각이 오기도 한다. 정신의 뿌리에 있기에 그런 생각이 오는 것이다. 고로 ‘뿌리 뽑기 기도’ 를 해야 된다.

14. 로마서 7장 21~25절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이같이 말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다. 그러나 참고 기도하여 이 곤고한 문제를 해결했다.

15. 자기 마음에서는 술도, 담배도, 자위행위도, 성행위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자기 육이 행해진다고 하며 괴로워한다. 근성을 뿌리 뽑지 못하여 정신적 현상으로 일어나니, 기도로 근성을 뽑아라.

16. 자기를 위해서 뇌의 생각에서 싹트는 것이 있으면 근성을 뽑아내야 된다. 자기는 원치 않으나 자꾸 온전치 못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근성이 있기 때문이다. 술도 담배도 오랫동안 안 하다가 또 하게 되는 것은 마음속에 근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성의 생각과 행위도 뇌에 근성이 있기에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다. 모두 뇌의 생리적 현상에서 오는 것들이다. 고로 근성을 뽑아야 된다.

17.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모두에게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저마다

‘조건’을 세워야 된다. 그 조건은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2) 생각을 다스려라

너희는 <육>이니 ‘육 사랑, 이성 사랑’이 생각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아라.

너희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체’가 아니냐.

15. 생각을 다스려라.

16. 생각을 그냥 두면, 제 생각대로 못된 생각까지 다 한다.

17. 못된 생각을 할 때 네가 그냥 두면 너도 공범이 된다.

18. 못된 생각을 하면, 즉시 네 생각을 한 방에 명증시켜 죽여 버려라.

19. 이성 생각을 하면 영의 생각으로 멀해 버려라.

20. 육의 성적인 생각을 하면 성령의 겹으로 단번에 명령 없이 처리하여라.
사탄은 지체 말고 처형해야 된다.

21. 마음을 네 생각이 지켜야 한다.

◆ <생각의 스위치>를 눌러서 한 번 뇌를 작동시키면, 마치
청룡열차(놀이기구)가 한 번 출발하면 일단 끝까지 가야 하듯, 중간에 멈춰지지
않습니다.

◆ 한 번 <생각의 스위치>를 누르면 ‘한 단계’까지 갑니다.

타락 문화를 접하든지, 이성의 행위를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TV를 보든지,
음란물을 보든지 한 번 ‘시동’을 걸면 ‘한 단계’는 다 해야 끝납니다.

◆ 상대가 없어도 혼자 음란한 생각을 하든지, 자위행위를 하든지 한 번
그쪽으로 생각하고 ‘생각의 시동’이 걸려 진행하면, <뇌>에서 ‘홍분 액’이
나와서 그것이 출발하여 <몸>으로 갑니다. 그러면 중간에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생각도, 모든 세포도, 신경도, 몸도 일단 ‘한 단계’는 진행합니다.

◆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가정국, 장년부 모두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자기 인생 운전>을 제대로 해야 된다.
불의와 죄의 것은 아예 <생각>으로 ‘시동’을 걸지 말고

〈생각의 스위치〉를 절대 누르지 말고, 〈생각〉에서 절제하고 잘라야 된다.”

3) 그 말을 듣지 않아야 한다

사탄이 꾀지만 았았으면, 사탄이 꾀어도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았았으면,
악한 사람들이 꾀지 았았으면 이성 죄를 짓지 았았을 것입니다.
또 섭리사를 나간 자들이 꾀지만 았았으면 섭리사를 나가지 았았을 것입니다.
누가 꾀더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았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4) 호기심의 사랑, 유혹을 버려야 된다

완벽하게 행동하면 사탄도, 어떤 여자도, 어떤 남자도 유혹하지 못합니다.
호기심에 좋아하면 유혹에 빠집니다.

호기심의 사랑을 버려야 됩니다.
성장하면 어렸을 때 호기심을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이기기 쉽습니다.
사랑에 빠져본 자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무 것도 아니지만 한 번 빠지면 나오기 힘들다는 것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담 하와 때부터 사랑의 유혹과 꼬임에 빠졌습니다.
세상의 문명 문화가 발달할수록 사랑으로 유혹하는 나이는 낮아지고 나이가
먹을수록 늘어납니다. 이성의 사랑은 어느 민족, 어느 곳에서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닥쳐옵니다. 이는 모두 사랑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유혹은 10대 중반부터, 특히 20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가장 많습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도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유혹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이기고, 사랑의 주관과 꼬임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 유혹에 빠지지 않는 자는 사랑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사랑뿐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 빠지면 그것을 못 다스립니다. 사랑은
일순간에 빠집니다. 정신을 다스려야 되고 사고를 달리해야 됩니다.

5) 관리해야 된다

‘영’도 관리하고 ‘육’도 관리하고 ‘환경’도 관리하면서,
<자기>도 관리하고 <형제>도 관리하고 <교회>도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 안 하고 그냥 두면 비바람이 몰아치듯 환난과 고통이 오고,
사탄과 악인들이 방해하고 꺾어서 ‘세상, 물질, 이성’으로 넘어집니다.
신앙이 조금 기울었을 때 일으키지 못하면, 결국 확 넘어가서 사망의 세계로 갑니다.

6) 오직 확인이다

37. 네 앞에 ‘속이는 것들’과 ‘해하는 것들’이 몰려와 네게 들러붙는다.
오직 <확인>만이 그것들을 분별하고 쫓개 내어

‘좋은 것’을 얻게 하고 ‘나쁜 것’은 내던지게 한다.

38. <확인>은 너를 피는 음녀나 음남에게서 벗어나게 해 주고, 영과 육을
음부와 지옥으로 가게 피는 사탄에게서 벗어나게 해 준다. 고로 <확인>은
구원자요, 성자다.

39. <확인>은 ‘너를 지키는 수호천사’와 같다.

40. 확인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해라.

41. <확인>은 너를 안전하게 지켜 주고, 불안과 의심에서 벗어나게 한다.
고로 <확인>과 항상 동행하여라. <확인>이 너를 지켜 준다.

42. <확인>은 ‘도끼’ 같아서 쫓개 낸다. 고로 벗겨서 속을 보여 준다.

43. <확인>을 천대하고 <확인>에 무관심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화를 당하고 탄식하며, 길바닥에 나앉아서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된다.

7) 할 수 있으니 하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남자만 창조하셨든지, 여자만 창조하셨으면
그 같은 죄를 안 짓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일 사람들의 말처럼 남자나 여자만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죄를 짓게 됩니다.
여자끼리 있어도, 남자끼리 있어도 동성연애를 합니다.

하나님이 잘못 창조하셨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마음에도 음욕을 품지 않고 간음죄를 짓지 않을 것인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니 하라고 한 것입니다.

◆ 자기가 정말 하고자 한다면, 자기가 정말로 하겠다고 하면,
자위행위, 음란물을 못 끊겠습니까? 이성을 못 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오늘 하면, 시체 돼. 진짜 육이 죽어.” 이래도 하겠습니까?

◆ 성자는 말씀하십니다. “각종 불의를 끊고 완전히 행해라!”

◆ 목숨 걸고 행해도 불가능합니까?

모두 목숨 걸고 안 해서 못 한다고 핑계 대며 자기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하면, 다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고자 한다면, 다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려고 한다면, 말씀을 완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 “도둑질하지 마!” 했는데, ‘육신’ 이 안 죽으니 또 하는 것입니다.

“자위행위, 이성 행위 하지 마!” 했는데, ‘육신’ 이 안 죽으니 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영’ 은 죽어 <사망 그늘>에 있습니다.

◆ 불의를 안 행하려고 하면, 안 해집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안 하려 하면, 안 해집니다.

자위행위, 음란물, 음란 소설, 이성 행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 의를 행하려 하면, 해집니다.

잠은 100% 자고, 음식은 100% 먹으면서

완전히 행하여 <천국 황금성> 가자고 하는데 포기합니까?

가고자 하기만 한다면, 완전하게 하기 쉽습니다.

◆ 솔직하게 털어놓고, 물을 순간 쏟듯이 쏟아 말하겠습니다.

◆ 자기가 정말 하고자 한다면, 자기가 정말로 하겠다고 하면,
자위행위, 음란물을 못 끊겠습니까? 이성을 못 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오늘 하면, 시체 돼. 진짜 육이 죽어.” 이래도 하겠습니까?

◆ 성자는 말씀하십니다. “각종 불의를 끊고 완전히 행해라!”

◆ 목숨 걸고 행해도 불가능합니까?

모두 목숨 걸고 안 해서 못 한다고 핑계 대며 자기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하면, 다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고자 한다면, 다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려고 한다면, 말씀을 완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8) 자기 주변의 나쁜 것들을 없애야 된다

<자기 주변의 나쁜 것들>을 없애기입니다.

음란한 기구도 없애고, 음란한 책이나 영상도 없애고,

나쁜 인터넷 사이트도 없애야 됩니다.

또 <뇌에 저장된 나쁜 생각>을 없애기입니다.

그러면 나쁜 것들을 없앴으니, 그런 생각도 행위도 안 하게 됩니다.

- 이는 마치 시체를 장사 지낸 격이고,

- 헌 집을 포클레인으로 싹 잡아당겨 없애고 새 집을 지은 격이고,

- 옛길과 옛 모양을 없애고 개발한 자연성전과 같은 격입니다.

고로 <옛길>은 못 다니게 되고, <옛 생각과 행위>는 못 하게 됩니다.

◆ 남자들이 흔히 보는 화보를 보면, 여자들의 각종 사진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멋진 여자>가 사진을 찍었어도,

하나님은 그 사진들을 예쁘게도 멋지게도 안 보십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니 하나님께 묻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같이 바로 볼까요?

모두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 이에 하나님께서

“<영>을 보고 <마음>을 보고 <행위>를 보아라.” 하셔서
순간 ‘그들의 영’을 봤습니다.

그 <영>이 어둠 속에서 거지같이 옷을 입고 있었고,

더럽고 어두운 곳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 <육>이 ‘나무’ 라면 <영>은 ‘열매’ 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아름답고 멋져도 <열매>가 안 좋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무>는 보통인데 <열매>가 좋으면 최고입니다.

이와 같이 <육>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져도

<영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은 보통인데 <영체>가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으면, 귀하고도 귀합니다.

고로 <육>만 보지 말고 <만들어진 영>을 봐야 됩니다.

9) 불의한 생각이 났을 때 즉시 잘라야 한다

44. <이성의 마음>도, <음란한 마음>도 ‘바람’을 타고 ‘나쁜 공기’가 와서 ‘코’로 들어가듯, ‘파장’을 타고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온다.

45. ‘나쁜 공기’가 ‘자기 코’로 들어오면 즉시 코를 막고 공기를 환기시키듯이, 즉시 ‘이성의 파장과 음란한 파장’을 저주하면서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말해라. 그러면 그 순간 <뇌의 파장>이 뒤바뀌어 버린다. 이는 마치 밤중에 도둑이 문을 잡고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문을 확 여니, 도둑의 머리가 문에 부딪혀서 뒤로 넘어져 10층에서 떨어지는 격이라서 즉시 <불의한 마음>도 떨어지고, <사탄과 귀신>도 떨어져 박살 나 속 시원하게 없어진다.

그때부터 방에서 <성자>를 모시고 ‘사랑의 잔치’를 하게 된다.

이것을 못 하면, <사탄>과 함께 ‘불의의 잔치’를 하여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한다.

46. <불의한 생각>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 생각하며 멍청하다가는 <불의한 생각>을 박살 낼 기회를 놓친다.

47. <불의한 생각>이 오는 즉시! 그 생각을 확 밀쳐서 바위 절벽 밑으로 내던져 버려라.

48. <불의한 생각>이 났을 때 즉시 자르지 않고, 짓밟개지 않고, 멸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서 용납하는 자는 강도에게 당하듯 ‘불의’에게 당하고 만다.

49. <불의한 생각>이 났을 때 그 즉시 잘라라! 박살 내라! 멸해 버려라! 이것이 ‘불의를 행하지 않을 최첨단의 방법’이다.

10) 참지만 말고, 거기서 나와야 한다

<이성과 동성에 살아 있는 자들>은 상대가 ‘실오라기’만큼만 다가와도 ‘반응’을 보이며 <자리>를 옮기고 <생각>을 옮기고 행합니다.

1. 참지만 말고, 거기서 나와라!

2. <구원>은 벗어나는 것, 나오는 것이다.

3. 아이나 어른이나 사람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겪는 대로 ‘영향’을 받고 원하며 행하게 된다.
4. 이성도, 사랑도 참으라고 교육하지만 말고, 안 참아도 되게 ‘거기서 나오는 교육’을 해 주고 ‘나오는 길’을 만들어 주어라.
5. 자기 마음은 ‘불의한 것’이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지만, 보고 듣고 느끼면 영향을 받고 하게 되기도 하고, 참다가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한다.
6. <불의한 것>을 안 보고 안 들으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 ‘불의한 영향’을 안 받게 된다.
7. <사망권 안에 있게 하면서 하지 말라고만 하는 방법>은 ‘눈을 뜨고 세상을 보지 말라’는 말과 같다. 눈을 뜨고는 세상을 안 볼 수가 없고, 그 주관권 안에 있고서는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8. <죄의 환경, 자기가 원하지 않는 각종 환경>에서 살면서, 죄를 안 짓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꾸짖고 참고 견딘다. 하지만 소용없을 때가 있다. 그때는 ‘그 주관권, 그 환경’에서 나와야 된다.
9. <사망권>에서 나오면, 참고 견디며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
10. <죄짓는 생각>에서 나와라. <네가 처한 환경>에서 나와라. <네 주관권>에서 나와라. 그러면 마음도, 몸도, 눈도, 귀도 벗어나게 된다.
11. 형제들에게, 생명들에게 참으라고만 하지 말고, 거기서 이끌어내 주어라! 구해 주어라!
12. <그 어두운 처지와 환경>에서 나와라! <나오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역사’다.
13. 만일 <생각>이 ‘이성’을 생각했다면, <생각>이 ‘이성 주관권’에 들어간 것이다. 참지만 말고 거기서 나와라!
14. 어린아이가 ‘공포 영화’를 보면,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마다 기절하고 넘어간다. 그때 “뭐가 무서워? 괜찮아. 마음 독하게 먹고 참아.” 하면, 어린아이가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놀라서 심장마비가 일어나 병원으로 실려 가는 신세가 된다.
15. <참으라는 교육>은 ‘옛날 구시대 교육’이다. ‘어쩔 수 없는 방법과 처세’다.
16. “참아라.” 하는 말은 특히 ‘연단할 때 쓰는 단어’다.
17. 이성을 사랑하면서, 참기만 한다고 되겠느냐. 그 주관권에서 나오면 능히 이긴다. 끊어야 이긴다.
18.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구시대에서 참아라.” 하지 않으시고

“새 시대로 나와라. 구원은 나오는 역사다.” 하신다.

11) 혼자 있어도 잘하게 만들어 놔야 한다

혼자 있으면, 상대적인 이성 죄는 절대적으로 안 지을 수 있다.

마음의 이성 죄와 자위행위만 다스리면 된다.

그러나 상대가 있으면, 그 상대 때문에 이성 죄를 짓게 된다.

사람은 청중 속에 있을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나, 같이 있을 때는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혼자 두면 걱정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약해서 넘어지고, 혼자 있을 때 사람에게 당하고, 혼자 있을 때 사탄의 꾀를 받아 죄를 짓고, 혼자 있을 때 이성 죄도 짓게 되고, 혼자 있을 때 음란물을 보고, 혼자 있을 때 TV나 인터넷이나 게임에 빠지고, 혼자 있을 때 각종 세상 것에 치우치게 됩니다.

고로 혼자서도 잘하게 만들어서 혼자 있어도 죄를 안 짓고, 환경을 다스리고, 자기와 사람들과 환경을 주관해야 됩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청중 속에 같이 있어도 결국 개인이 해야 존재합니다.

고로 혼자 있어도 잘하게 만들어 놔야 ‘개인 점수’가 많이 나와서 ‘변화’가 크게 일어나 ‘휴거’ 됩니다.

26. 인생 삶은 개인이 혼자 있을 때가 70~80%다.

고로 개인이 ‘사는 법’을 알고, 개인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개인이 혼자 있어도 행한다. 고로 개인이 잘하도록 만들어 주기다.

27. 지도자도 개인마다 보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엄청나다.

그런데 개인 혼자 있을 때는 약하고, 탄짓하고, 생각이 육적으로 흘러간다.

28. 혼자 있을 때 자위행위 하고, 인터넷 보고, 음란물 보고, 연애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여러 가지 죄를 짓는다.

여럿이 있을 때나, 교회에서나, 집회 때는 못 한다.

고로 <개인 신앙>을 넣어 주어 개인이 혼자 있어도 잘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

11-1. 사연과 실천

1)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이성애 빠지지 않고 살아왔다

선생은 15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둔산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다. 그때 그 순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고 클 기회였다.

그리고 커서도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만 따라다니겠다고 고백하며, 이성애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왔다.

선생님이 이만치 올 수 있었던 것은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서약을 12번이나 하고 올라왔기 때문이다. 결혼하면 죽는 걸로 생각하고 그런 사고를 먹어버리고 올라오니 사탄들이 저 높은 서약을 했으니 죽을 줄 알고 안한다고 생각하게끔 아예 사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도 안 만들었으면 지금 산골짜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나를 누가 보겠습니까. 나와 같이 살던 고 집사, 남 집사는 가정에서만 쓰여지지 않습니다. 나는 세계적으로 쓰여지니까 수백만 배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여져야 합니다. 나는 나를 개인에게, 한 여자에게 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여지겠다고 했습니다.

2) 사랑의 유혹

선생은 젊었을 때 산에 들어가 있으니 사랑의 유혹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노방 전도를 다니게 될 때 사람을 만나니 정신적으로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스렸습니다. 이미 그때 타락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빠지지 말고 다스려야 됩니다. 사랑의 유혹에 대해서 알아야 안 빠집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선생이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에 TV와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동네에 북적거렸습니다. 어느 날 선생이 교회에 갔다 오는데 같은 교회에 다니는 예쁜 여자 두 명이 내게 다가와 밤 11시가 되어 늦었으니 집까지 배려해준다고 했습니다.

두 여자는 나를 데리고 가다가 달밤에 앉혀 놓고 사랑으로 갖은 유혹을 했습니다.

내가 싫다고, 싫다고 하니 한 번만 껴안아 달라고 하면서 나를 놓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빠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절대 마음 문을 안 따 주니,

“다른 남자들은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너는 준다고 해도 안 받으니 바보다.” 하면서 그냥 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는 멋쟁이 여자도 소용없었습니다.

한번은 위문 공연을 온 여자 연예인이 공연을 마치고 텅 빈 막사에서 혼자 조용히 막사를 지키는 내게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은 군용 침대에서 엎드려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멋쟁이 여자가 다가와서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 “군인 아저씨. 저 좀 봐요. 성경 보고 있네요. 왜 혼자 있어요?”

선생: “모두 다 공연장에 가고 나 혼자 있습니다.”

여자: “정말 진실한 교인이시네요. 저는 이런 참된 사람을 찾았어요. 앉아서 저와 이야기해요.”

선생: “저는 성경 봐야 해요.”

여자: “저는 가수이고 22살이에요. 연예인이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정말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을 사귀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남자를 한 번도 사귀어 적이 없어요.”

여자가 계속 내게 호감을 보이며 이야기했지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딱 잘라 버렸습니다.

역시 그 여자도 나를 보고 바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했습니다. “나는 스타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데도 다 뿌리쳤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저를 사귀려고 했지만 다 싫다고 했어요.

마음에 안 들고 믿을 수가 없어서요.”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주님을 사랑하니 한 여자의 사랑의 유혹에 절대 넘어지지 않고 다스렸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를 전도하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요.” 했습니다.

모든 유혹은 자기가 절대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이깁니다.

그 여자가 내게 자기의 사랑을 허락했어도 내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니 절대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주님만 사랑하니 세상 미인들이 와도 다 이기고 주님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사랑으로 유혹해도 모두 물리치고 이기면서 제일 우선권으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사랑에 성공하게 됩니다.

3) 과일을 따먹는다

아랫집에 칠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 밤 콩쿨대회가 있다고 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일반 노래가 재미없다고 했더니

“오늘 저녁에 콩쿨대회하면 오항리에서 많이 오는데, 그런데 따먹을 줄을 알아야지. 정집사는.” “무얼 따먹어?” “미성년자에게는 말하면 안되지.” 그래서 산에 가서 굴속에서 무엇을 따먹는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의 따먹는다는 단어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 때가 70년대였습니다.

그 때까지 수천가지를 보여주셨는데 몰랐고 못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깨닫기를 원했는데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분담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한 구절을 수십 번씩 반복해서 읽고, 기도하며 그 근본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땅을 치고 무릎을 치며 감탄하면서 기쁨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과 말씀의 불을 받게 됩니다.

선생도 산에서 기도할 때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비유한 것의 근본이 과일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깨달았을 때, 깔고 앉은 바위를 주먹으로 치면서

“이것이다!” 하며 감탄했습니다. 연속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가슴에 충격과 기쁨을 느끼는 뜨거운 체험을 하고 말씀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며 ‘저 태양이 분명하듯이 선악과는 여자 하와를 비유하여 말하고, 생명나무는 남자 아담을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하면서 태양빛과 같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군대 가기 전, 동네 젊은 청년들이 나에게 와서 “따먹었어.” 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과일을 따먹었다고 했으므로 왜 과일을 따먹은 것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죄가 되느냐고 의문만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은혜가 없고, 의문만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그것을 깨달으려 하니 깨닫게 되었고, 성경을 수백 번 반복하며 그곳을 읽으니 결국 기도와 더불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로 지도자들은 지금부터 매일 성경을 10~30장씩 세밀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횟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밀히 자세히 읽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깨우쳐달라고 하며 읽어야 됩니다.

4) ‘이성 죄를 짓는 자들’ 에 대한 회개 조건

◆ 6월 10일부터 온몸이 쭈시고 열이 39도 이상 올라가서 내려가지 않고, 힘이 쭉 빠지고 너무 아파서 시름거리며 보냈습니다.

그래도 매일 밀려오는 서류들을 안 보고 답장을 안 해 주면, 전체가 일을 못 하니 최대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더 힘이 빠지고 너무 아파서 결국 식음을 폐하고 누워서 보냈습니다.

그동안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최대한 일을 했더니, 이것이 쌓여서 영양에 문제가 생겼다 생각하고,

“나으면, 앞으로 하루 한 끼는 더 먹어야지.” 했습니다.

◆ 아프니까 ‘육성’ 이 썩 사라졌고, 아픈 것이 낫기만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죄의 값은 사망이다(롬 6:23).’ 라는 성구가 떠올랐고,

나와 섭리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특히 ‘이성 죄를 짓는 자들’ 을 놓고 회개했습니다.

<이성 죄>는 ‘휴거 신부가 되는 데 독약’ 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선생이 대신 회개했습니다.

11-2. 성경인물

1) 성경인물들과 이성의 문제

- ◇ 모세 이전 <아담과 하와 때>, 이들이 ‘이성의 범죄’를 하니
하나님은 형벌을 주셨습니다.
- ◇ 노아 때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혼인 문란함으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미리 ‘방주’를 만들게 하여,
노아의 여덟 식구만 심판을 면했습니다.
- ◇ 소돔과 고모라 성도 ‘성적(性的)인 죄’를 짓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하늘 끝까지 닿아 관영되니, 의로운 롯과 그의 가족들만 살리시고
모든 성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롯과 그 가족들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뒤돌아본 롯의 아내는 죽었습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 ◇ 니느웨 성은 죄악이 관영되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으나,
요나 선지자를 보냈을 때 온 성이 모두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회개해야 육도 영도 살게 됩니다.

2) 이성문제의 누명

이성문제로 누명을 씌우는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걱정하는 것입니다.
가인들은 에덴동산에서부터 항상 이성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가인들은 항상 아벨편에게 “강간했다. 성추행했다.”
이런 이성문제로 에덴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4천년이 끝나고 2천년까지 6천년동안 계속 고통을 주었습니다.
아담 때도 그러하고, 노아 때에도 그러하고, 모세 때에도 그러하고, 아브라함
때에도 그러하고, 이삭 때에도 그러하고, 야곱에게도 그러했고, 요셉에게도
그렇게 해서 누명을 씌웠습니다. 요셉은 그 바람에 총리대신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13년 만에 총리대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성문제로 누명 씌워서 “창녀들과

논다. 강간했다. 성추행했다.” 했습니다. 가인들은 아벨 민족에게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인들은 하나님께서 천국 들어감을 금하겠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상황도 바꾸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 이야기들만 합니다.

2)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도 육적 쾌락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다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깨뜨렸습니다.
그리함으로 육도 영도 멸망 받고 끝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신부 입장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따먹지 말라는 금단의 과일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사랑의 마음을 루시퍼에게 주고, 아담과 육적인 사랑 관계를 하여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마음을 뺏기고 서로 육체의 쾌감을 느끼며 금단의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에덴동산의 선악과는 사랑의 과일, 즉 금단의 열매였습니다.
아담은 남자이니 생명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깨지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는 그들을 향한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종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 위치가 신부 입장에서 종 입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4000년 구약역사는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겨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죽는 길’도 알려 주시고, ‘사는 길’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안 따먹으면 산다.” 였습니다.

곧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에 이성 관계를 안 하면 산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이성 타락을 하면 죽는다.’ 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짝을 찾아 사랑해야 됩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생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살기도 합니다.

3) 노아

아담 이후 노아 시대에는 이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부패되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짝을 만나 축복받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혼인했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 세계로 가게 되었고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노아는 신앙을 지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보다 온전하게 살았고, 그로 인하여 축복을 받고 시대 빛을 받으며 살았다.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되어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양심을 상징하는 물로 심판하셨다. 의로운 노아는 미리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방주를 만들어 자기도 구하고 자기 식구들까지 다 구했다. 그 시대 생명을 구하는 빛을 받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빛을 받하였다.
그 시대 그 지역이 모두 멸망을 받았지만 노아는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기에 자기와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축복이 이어지도록 조건을 세워 주었다. 노아는 그 시대 의인의 중심자로서 후손들이 번창하게 하였다. 자기도 빛을 받았으며 자기를 따른 가족들과 후손들도 빛을 받하게 해 주었다.
나 예수가 육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인자가 다시 올 때는 노아 때같이 된다.’ 하지 않았느냐(마 24:37). 인자가 다시 올 때란, 재림 때가 아니냐. 지금은 재림 직전의 때가 아니냐. 나 예수가 말하는데 틀리겠느냐.
너희도 노아처럼 신앙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아라.
이 시대는 노아 시대와 같이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문란한 시대다.
그러므로 개인마다 민족마다 노아 때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
오직 노아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 자는 영도 육도 심판을 면하게 된다.
오직 이 시대에 내가 준 말씀대로 살아 최고 인생의 빛을 받하면서, 자기와 자기 혈통들과 형제들을 말씀의 방주로 구하여라. 물 썰 틈 없는 방주를 만들어 물바다 속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새어 들어오지 않게 완전하게 신앙의 방주를 만들고, 자기 육·정신·마음·혼·영의 방주를 시대

말씀에 순종하며 만들어라.

그래야 최악이 자기 마음과 행실에 들어오지 않고 보호받고 구원받아 심판을 면한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끊으시고,

그 후 1600년 동안 이 땅을 지켜보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니,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하심을 보고 “너는 완전한 자다.” 하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 주시며, ‘사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성 사랑과 혼인 문란으로 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멀리하니, 세상을 물로 쓸어 다 멸하겠다. 이는 ‘죽는 길’이다. 너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리니, ‘방주’를 만들어 너와 네 식구들을 구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라.”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 자기 식구를 구했습니다.

이로써 〈홍수 심판〉 때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여덟 식구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면,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듣고 지켰습니다.

고로 그 말씀을 듣고 살아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4)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아브라함과 롯’

◆ 구약 4000년 동안, 신약 2000년 동안,
구원역사 6000년 동안 그같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면서 섭리해 오셨습니다.

◆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 땅에 롯을 보내셨습니다.
소돔은 롯을 알아주지 않고 제 할 일들만 하는 향락의 성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까지도 끌어내어 없애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소돔 땅과 이웃 도시들까지 다 불로 멸했습니다.
다만, 롯과 그의 식구들만 구해 주셨습니다.
그중 롯의 아내는 성을 빠져나오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뒤를 돌아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성으로 타락되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보고를 듣고서, 직접 확인하러 가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 말씀하시기를 “소돔 땅이 죄악으로 관영되었다고 하여, 정말 그러한지 확인하러 간다.”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곳에 의인 열 명이 있으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내가 의인 열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저녁때 소돔 땅에 두 천사를 보내셨고, 소돔 땅이 ‘성 문란’으로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불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평소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대접했고, 이에 천사들은 롯에게 소돔 땅의 심판을 알려 주었고, 그곳에서 즉시 피하게 했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 심판>으로 끝났습니다. ‘성 문란’으로 더러워진 성읍이 다 타 버리고 재만 남았습니다. 더러운 것은 태워야 더 이상 오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포기하고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썩은 행위를 하며 타락된 삶을 살았습니다. 고로 썩고 썩어 더 이상 살 수 있는 땅이 못 되었습니다.

나무가 죽으면 베어 불 지르듯이, 쓰레기는 불 질러 태우듯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없앴 것입니다.

60.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사랑의 문화’로 알고, ‘예술 문화’로 알고 살았다. 또 ‘인간이 자연스럽게 사는 삶’으로 알고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였다. 고로 심판받고 멸망했다.

61. 같은 것을 행했어도 ‘하나님을 중심하고 행한 것’과 ‘인간끼리 행한 것’은 다르다. 고로 같은 것을 행했어도 ‘하나님을 중심하고 행한 것’은

죄가 아니고, ‘인간끼리 행한 것’은 죄다.

5) 요셉

요셉은 사랑의 유혹에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도 옥에 갇혀 고통을 받았습니다. 결국 옥에서 왕의 수종자를 만나 왕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나라 문제를 풀어주는 자가 되어 큰 사명을 얻고 총리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열두 형제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사랑하듯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또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는데 이스마엘 사람은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임금의 수종을 드는 장관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몸종을 했습니다. 요셉이 팔려서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간청하며 사랑하자고 해서 “남편이 있는데 왜 나를 사랑하냐” 하니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가서 봐두면 큰일나게 생겼으니 누명을 씌워 버리고 남편에게 일렸습니다. “이놈이 나를 덮쳐서 오늘 강간당할 뻔했다. 당신이 데리고 가서 책임져라. 이게 뭐냐. 큰일날 뻔했다” 하니 요셉이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결국 감옥에 갇혔지만 3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써 인해 요셉이 형통했더라 했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꿈을 꿔는데, 엄청난 꿈을 꿔습니다. 그 꿈을 도대체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찾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이 나와서 그 꿈을 푸는 역사가 있었을 때 요셉이 총리대신이 되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세계를 감옥에서 끝까지 이겨 내고, 어려움을 이겨 냈습니다.

◇ 요셉은 여우 같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성적인 유혹을 해도 꺾을 받지 않고 온전히 행하였지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이기며,

옥에서도 충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행했습니다.

◇ 그러던 중, 요셉과 함께 옥에 갇혀 있었던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꾸
꿈을

요셉이 풀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풀어 준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그는
원래 관직대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가 복직이 되면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 어느 날,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한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풀게 해도 꿈을 푸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옥에서 자기의 꿈을 풀어 준 요셉이
생각나게 하시어, 그는 왕에게 꿈을 잘 푸는 요셉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 요셉이 옥에서 나와 너무나도 통쾌하게 왕의 꿈을 풀어 주니 바로 왕은
요셉에게 총리 벼슬을 주어 애굽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 하나님이 보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행하니 하나님은 이같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6) 삼손

◆ 하나님은 삼손에게 ‘네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삼손이 신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첫째, 술을 먹지 말아라.

둘째, 머리에 칼을 대어 깎지 말아라.

셋째, 여자를 멀리하여라.

넷째, 이 비밀을 가르쳐 주지 말아라.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행하니, ‘신’이 되어 표적을
행했습니다.

삼손은 ‘나귀의 턱 뼈’를 칼같이 휘두르며 수천 명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자를 가까이 했으며, 여자에게 자기 비밀을 고했습니다.

그 여자는 ‘들릴라’라는 여자였습니다.

실상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

적의 군대인 블레셋에서 보낸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고, 삼손의 머리를 깎게 했습니다.

고로 삼손은 ‘신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이 됐습니다.

◆ <여자>는 ‘영웅 삼손의 힘’을 쫓 뺏습니다.

◆ ‘아담의 힘’도 <여자, 하와>가 뺏습니다.

◆ <여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남자에게 힘을 줍니다.

◆ <말씀>을 뺏기면, <능력>도 뺏긴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1. 지체의 핵은 뇌다. 그 핵은 생각이다. 생각이 병들면 바로 치명적으로 전체가 몸살을 앓게 된다.

2. 생각이나 육체의 사랑의 핵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사탄이 와서 바로 생각의 몸살을 앓게 된다. 바로 회개하고 사탄을 쫓아내면 회복된다.

3. 하나님 앞에 행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만물로 사역자를 삼아 깨우치기도 하신다.

4. 최고 정상적인 능력과 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다.

5.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행실이어야, 하나님의 신이 성령과 성자와 함께한다. 고로 힘과 능력과 건강이 충만하게 된다.

6. 사랑의 힘이 그리 강하다고 하나, 비정상적인 사랑은 삼손같이, 아담과 하와같이 힘을 잃고 폐인이 되게 한다.

7. 정상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과 함께하니, 다윗과 같이 힘을 얻는다.

8. 창조주의 법, 진리, 순리, 이치를 어기면 육도 영도 그 행한 대로 받는다.

9. 천법을 어겼을 때 최고로 돕는 것이 있다면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하게 돕는 것이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7) 다윗

다윗 왕은 남자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을 위험한 전쟁터에 가서 죽게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기도하여 다시 용서받았습니다.

사람이 손을 안 대도 하나님은 이성애 범죄 하면 낱알이 다 손을 대십니다.

다윗이 구태여 사람도 많은데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야 했을까? 뜻이라고요?
모두 뜻이라고 했지만 본래는 그것이 뜻이 아닙니다. 안 취했어야 합니다.
남이 데리고 사는 부인을 취하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혹시나 마음이 울적해서 취했다고 해도 그 후에는 생각을 달래해서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원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노발대발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뜻이었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뜻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뜻이 아닌 것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불인다고 뜻이 아닙니다. 뜻은 금방 만드다고 뜻이 아닙니다. 영원전 부터 뜻이
흘러오며 역사해 옵니다. 물이 여기에 흘러 내려간다고 여기서 난 것이
아닙니다. 강줄기 같으면 1000리 밖에서부터 흘러내려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뜻은 금방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란 화가 난다고 금방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옛부터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리라고 합니다. 그랬어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했을 때는 덮어졌던 것을 다시 뜻으로 돌리셨습니다.
차타고 가다가 뒹굴었는데 그것을 다시 일으켜서 원래대로 해놓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더러운 그릇을 씻어 낸 것입니다. 우리아 아내에게서 난 자식을
죽게 하시어 마치 더러운 그릇을 씻어 정화시키듯 다시금 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뜻이 아닙니다. 뜻이 아니었는데 이뤄진 것이 많습니다. 본래는 그것이
아닙니다.

본래는 다윗이 멋있는 여자를 취해서 솔로몬 같은 사람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원래의 뜻입니다. 원래의 뜻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 혼나고, 노하시고,
분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삼하12>에 나와있습니다. 밋세바에게 난 첫자식을
죽게 하시고 다시금 낳은 자식을 솔로몬이라 하였는데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했습니다. 희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말과 통하는
이름입니다. 그 때부터 다시 전쟁을 해서 이웃나라 왕을 죽이고 금면류관을
뺏어다 쓰고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쟁도 지니까 못나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지니까요. 어떤 누구라고 해도 하나님이 떠나면 똑같은
사람일뿐이었습니다. 다윗이 한달란트의 금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그 나라에
금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왕이 크게 만들어서 쓴 면류관이 한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란트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섯달란트라고
하면 금면류관 5개 만들 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달란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왜 취했느냐면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울적해서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도 여자는 많았습니다. 다윗은 사람
죽이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했었습니다. 다 죽어 가는 사람을 죽여도 싫어했고,
원수를 죽여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자의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자가 무엇인지 다윗의
마음을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여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느냐? 여자 취한 것도 죄인데
사람을 죽였으니 또 죄이다.” 그래서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다윗이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집안 망신을 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함께
하셨는데 그 때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나발의 부인을 취했을 때도 상관
안했습니다. 그녀가 살 짓을 해서 사랑 받은 것이니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을 때는 책망을 했습니다. 여자의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그로 인해서 역사적 흠을
기록했습니다.

뜻이 아닌데 이뤄진 것이 많습니다. 말 같지 않는데 말로 만들어 전한 것이
많습니다.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8) 호세아

구약을 읽다 보면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호세아선지자는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자고 했지만 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하나님께서 결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호세아야! 호세아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너는 이제 결혼해야지." "누구랑요?" "저 여자와." "누구요?" "고멜이다."

"같은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창녀인데요?" "맞다. 그 여자야."

"하나님, 왜요?" "결혼해. 네 짝이야."

"내 짝인데 타락해서 저렇게 되었군요. 내가 일찍 전도했으면 타락하지
않았을텐데."

호세아선지자가 여러 가지 생각이 깊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때부터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첫날 저녁부터 바가지로 굶는 것입니다.

"뭐 이래? 정말 맛탱이가 없네. 남자가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왜 이런 채수 없는 남자가 걸렸냐?"

"아이고, 하나님! 이것이 웬말입니까? 총각이 여자를 처음 봐서 쑥스러운데 이 여자는 내가 선지자라도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고 있네요."

그 여자가 날마다 바가지를 긁는 것입니다.

"왜 이제 왔어? 어디 갔다 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왔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말씀을 전하고 다녀? 일을 해야지. 이리 와서 내 이야기를 들어봐.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매일 잘해도 못해도 바가지를 긁으니 호세아선지자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여자가 너무너무 속을 썩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너무너무 속을 썩이는 자가 있으면 호세아의 여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너무너무 속을 썩이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양의 주인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양을 지키고 있을테니 포도송이와 떡을 가지고 와라."

"무슨 다윗이 양떼를 지켰다는 거야? 난 그런 놈 모른다고 해라."

그러나 부인은 지혜로워서 다행이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해를 하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호세아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야! 호세아야!" "네?" "너는 뭘 모르고 살고 있다."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여자로 인해서 속을 썩듯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속을 썩는 것을 모르지?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좋게만 보지말아라. 개같은 놈들인데 뭐 그렇게 높이 보냐? 창녀같은 애들이다."

속을 썩일 때 동물이라면 잡아먹지만 사람은 그러지도 못하고 미치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꼭 껴안아서 죽여도 살인입니다. 사랑과실치사. 사람이 너무 좋아서 꼭 껴안다가 죽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비로소 호세아선지자는 그때부터 깨닫고 말씀을 돌려서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호세아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왜? 사탄이 끼여들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통합니까?

사탄이 잡고 있어서 죄악 투성이인데 좋은 말로 하나님과 일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답답한데 그냥 봐두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죄를 발라내고 회개시키고 수술하고 끄집어내고 창피를 주고 형벌도 주고 심판해야 하나님이 시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들었는데도 매일 괜찮다고만 하면 안됩니다.

집에서도 너무 이빠하기만 하면 오히려 다른 데로 갑니다.

"당신, 이렇게 하면 안돼. 따끔하게 회개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정도 여러분들의 심정과 같이 풀리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데도 "너는 괜찮다" 그러기만 하면 안됩니다.

"잘라내. 안잘라내면 네가 죽는다. 빨리 잘라내. 한 달 후면 돌아다닐 수 있다.

그냥은 안된다. 큰일 난다. 죽어." 이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들이 사탄의 주관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의인으로 보고 설교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안 풀려서 호세아선지자로 하여금 그런 여자랑 결혼하게 해서 본인이 체휼하게 하신 것입니다.

9) 예수님

○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기다리던 자들이 모르니 그를 이단 적그리스도로 오해하고 미워하다 십자가에 죽였다. 오해는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한다. 그렇지 않은 자를 자기가 오해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다 자신에게 간다. 예수님이 창녀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고 전도하여 주를 알게 해 줬다. 그런데 미련하고 시대 구원자에 대해 소경인 자들은 예수님이 창녀들을 사랑했다고 오해했다. 그 죄가 그들을 지옥으로 가게 했다.

어느 시대도 그러하다.

예수님은 그 시대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부모같이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했더라도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창녀들과 놀아난다, 사랑한다, 교리 주장이 율법과 다르다.’ 하고 모두 불신하였다.

그리고 이단시하고 결국 죄인시하여 예수님을 죽였다.

10) 간음하다 잡힌 온 여자

•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혀 온 여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 8:4~9>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를 두고 힐문하는 유대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 죄가 있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보던 자들이 그냥 갔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온 여자를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했을 때, 다 죄가 있으니 그 엄한 율법자들도 양심에 찔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섭리사에서도 형제를 힐문하려면 죄 없는 자가하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다시는 간음의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또 간음죄를 지었더라면 그때는 행위대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여자는 다시는 죄를 안 짓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일생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11-3. 성경

1) 이사야 56장 7절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게 함으로 ‘뇌’를 기쁘게 하여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기쁘게 하십니다.

★ <뇌 사랑>을 하면, 마치 남녀가 사랑하는 것과 같은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육체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극치의 기쁨입니다.

★ <정신적 사랑, 뇌 사랑>도 ‘하나의 육체적 사랑’과 같은 격입니다.

그러나 <뇌 사랑>은 육체 사랑의 수준을 뛰어넘어 훨씬 더 극치의 차원으로 느끼게 되고, 극치의 보람이 있습니다.

2) 마태복음 5장 28절

(마 5:28) 「마음에도 음욕을 품지 말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니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사람이 마음에도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냐고 합니다. 음욕을 품지 않으려 해도 여자를 보면 마음에 음욕만은 생긴다고 하면서, 차라리 여자가 없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합니다.

여자가 없는 곳에 가서 살든지, 남자가 없는 곳에 가서 살아도 생각하면 또 마음에 음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남자만 창조하셨든지, 여자만 창조하셨으면 그 같은 죄를 안 짓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후에 ‘천국은 가겠지. 정말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만일 사람들의 말처럼 남자나 여자만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죄를 짓게 됩니다.

여자끼리 있어도, 남자끼리 있어도 동성연애를 합니다. 하나님이 잘못 창조하셨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마음에도 음욕을 품지 않고 간음죄를 짓지 않을 것인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니 하라고 한

것입니다.

마음에 자꾸 이성을 생각하니까 음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주관권을 벗어나 천국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빛으로 나오면 어둠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면 이성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죽었다고 했다(고전 15:22).

이는 곧 사랑 법에 있어서 죽었다 함이다. 고로 종이 되었다.

나 예수가 세상에 와서 비로소 새 법을 주어 이를 깨닫게 하고 사랑 법을 지키게 했다. 고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라고 했다(마 5:28).

내가 그렇게도 가르쳐 주며 성경에 기록해 놓았건만, 성경의 비유를 알지 못하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것으로 푸니, 어떻게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지키며 살 수 있겠느냐.

시대 말씀을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섭리사 참진리의 자부심을 가지고 전하여라. 주일말씀, 수요일말씀을 지켜라. 사랑 법을 꼭 지켜라.

3) 마태복음 22장 37~38절

마태복음 22장 37~38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의 사랑은 <뇌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지상천국’도 이룹니다.

또한 영을 휴거시켜 천국에 가게 하여 ‘천상천국’도 이룹니다.

4) 마태복음 25장 1절~13절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음을 결혼식에 비유하여

“마치 오는 자는 신랑과 같다. 너희는 신앙의 신부 같은 입장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실체 육적 신랑으로 가정을 꾸리러 오는 사랑의 신랑이 아닙니다. 역시 아가페 사랑, 정신적 사랑, 영적 영의 사랑, 이성을 제하고 서로 돕고 용서해주며 화목하고 사랑하며,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사랑의 대상 되어 사는 신부의 입장의 삶을 말한 것입니다.

5) 요한계시록 14장 4절~5절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 하나님은 이와 같은 14만 4천 무리를 모으십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이성 타락>을 지구상에서 최고의 죄로 다루십니다.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자들을 모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로 섭리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깨뜨린 <사랑의 뜻>을 복직하여 성삼위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이성 법>을 온전히 지키게 했습니다.

고로 ‘마음이 흐른 것’ 뿐 아니라

‘자위행위’까지 <죄>로 다루면서 깨끗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리적 현상인 자위행위까지 금해야 하나?’

하며 한숨 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이룰 주인공들입니다.

이 말씀을 이뤄야 하니,

호리라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6) 요한계시록 17장 15절

썩은 물을 보이며 음녀나 타락한 백성이나 그들의 말들을 썩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15-16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앓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깨끗한 물에서 씻어야 몸도 옷도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더러운 물이나 반쯤 썩은 물에서 몸을 씻거나 빨래를 해봐요.

몸을 씻어도 냄새가 나고, 옷을 빨아도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 물은 먹을 수도 없습니다. 꿈에 더러운 물을 보았지요? 더러운 환경을 보았지요? 모두 계시들입니다.

자기의 행실이나 다른 자들의 행실과 그 마음들을 은밀히 계시해주는 것입니다. 더러우면 더러운 물이나 더러운 환경에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을 보면 음녀가 앉은 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더러운 것이나 더러운 말들을 더러운 물과 더러운 것으로 표현합니다.

말과 삶의 행실이 더러우면 더러운 물, 썩은 물, 배설물 등으로 보여주고 계시합니다.

악한 사람을 비유할 때는 썩은 물로 비유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의 앉은 물은 더러운 물이다 해서 타락한 사람, 악한 사람을 썩은 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깨끗한 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이 꿈에 깨끗한 물, 더러운 물을 많이 볼 것입니다. 자기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 구름은 더러운 물이 햇볕에 의해 증발돼서

깨끗하게 된 수증기가 응결하여 공중에 떠 있는 것입니다.

고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두고 깨끗하니 구름이라고 한 것입니다.

반면, 계시록 17장 15절에서는 ‘음녀가 앉은 물, 곧 더러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했습니다.

음녀, 이성 타락한 여자, 썩은 여자를 더러운 물과 같다고 비유했고, 타락한 백성과 나라를 더러운 물에 비유한 것입니다.

11-4. 월명동

1) 이성으로 넘어지면 새로운 예비한 자를 세우신다

◆ <월명동 야심작>을 쌓을 때입니다.

한번은 야심작의 돌이 무너지면서 <세운 돌>이 깨졌습니다.

깨진 돌이 너무 아까워서 <깨진 돌>은 일반 장소에 옮겨 세우고,

일반 장소에 있던 <호피석>을 가져다 야심작에 세웠습니다.

이 호피석은 ‘야심작을 다 쌓고 나서 들어온 돌’이었습니다.

돌이 좋았는데 <야심작에 이미 세운 돌>을 빼내고 쌓으면 위험하니,
야심작에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장소에 세워 뒀었습니다.

그런데 야심작이 무너지면서 돌이 깨져서

<깨진 돌>을 대신하여 이 <호피석>을 가져다 쌓게 되었습니다.

이 호피석 외에도 야심작 공사가 끝나고 ‘크고 좋은 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야심작에는 다시 쌓을 수 없어서 정말 아깝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 임시로 쌓아 두고는

‘이 돌들을 어디에 쓰지?’ 했었는데, 그때 야심작이 무너져서

<나중에 들어온 크고 좋은 돌들>을 다 가져다 쌓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여섯 번째에는 <최고 좋은 작품 돌>까지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구상>대로 삼위의 속이 시원하게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상>대로 됐으니,

그제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기뻐하셨습니다!

◆ <야심작이 무너지기 전>에는 그 자리에 ‘일반 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돌이 넘어지면서 거의 깨지게 되어,

그때 ‘더 좋은 돌들’로 바뀌서 쌓았습니다.

이같이 세운 돌이 넘어지고 깨지면 ‘미리 예비한 더 좋은 돌’을 세우듯,
섭리사에 있다가 이성이나 세상으로 넘어져서 나가면

‘그보다 더 크고 좋은 자, 예비한 자’를 세우십니다.

2) ‘뇌 사랑’으로 월명동 만들었듯이 ‘뇌 사랑’을 하며 살아가

월명동을 만들 때도 <뇌 사랑>을 하면서 생각을 집중하여 욕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나무, 돌, 물’을 마치 한 여자를 사랑하듯 사랑하며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구상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10~20년 동안 월명동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도 기쁨이 넘쳤고, 당세에도 만든 것을 쓰면서 기뻐하게 되었고, 또 만든 것이 1000년 동안 남아지니 앞으로도 기뻐하며 쓰게 됩니다.

만물을 사랑하여 만들어 놓으니, 만물은 변함이 없습니다. 돌은 변함없이 굳건하고, 나무는 매일 성장하여 더 기쁨을 주고, 그로 인해 시대의 귀한 생명들이 모여들어 행하니 더 기뻐하게 됐습니다. 만물을 사랑하여 개발하니, 돌도 나무도 남아졌고, 하나님의 성전도 남아졌고, 그로 인해 시대의 귀한 생명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체’를 가지고 사랑하여 성공하면, ‘상대 하나’가 남습니다.

그 역시 불신하면 사랑 배신으로 끝납니다.

그러니 계속 “외롭다. 힘들다.” 하고, 사랑의 배신으로 슬피하며 살게 됩니다. 계속 <육 사랑>만 생각하니 <뇌 사랑>을 몰라서 극치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외로우니 계속 ‘사랑의 상대’만 찾습니다. 부부 사이도 ‘육체 사랑’이 중심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뇌 사랑’을 하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사랑하여 하나 되어야 부부의 사랑을 계속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3) 자기 인생을 뺏기지 말고 월명동처럼 개발하여라

◆ <하나님이 축복하여 자기에게 주신 것>이 다른 것보다 못해도 월명동같이 개발하면 좋게 됩니다.

고로 하나님이 주셨으면, 절대 바꾸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뺏기지도 말아야 됩니다.

◆ <자기 인생>이 다른 사람에 비해 못해도 월명동같이 개발하면 좋게 됩니다.

고로 <자기 인생>을 다른 것과 바꾸지도 말고 뺏기지도 말고, 계속 ‘하나님의 생각’대로 월명동같이 개발하기 바랍니다!

◆ <시대 영웅>이라도 성장하고 만들기 전에는 누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도 개발하고 만들기 전에는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성장하고 만들면 완전히 달라지고, 개발하고 만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계에서 ‘개성의 최고’가 됩니다. 자기 인생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각, 축복의 역사, 시대 말씀, 고귀한 사랑, 자신의 귀한
품을

사탄에게도, 세상에도, 이성에게도, 동성에게도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각>으로 성장시키고 개발하면,

<월명동 자연성전>같이 ‘시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인생’ 이 됩니다!